



미주동문의 모교사랑 열기 ‘후끈’



지난 6월 12일 미국 시카고 링컨서 메리어트 리조트에서 열린 미주동창회 제19차 평의원회에 참석한 미주지역 동문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본국 동창회 순방단은 지난 6월 11~13일 미국 시카고 링컨서 메리어트 리조트에서 열린 미주동창회 제19차 평의원회에 참석해 미주 동문들을 격려했다. 순방단은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孔大植부회장, 관악회 明泰鉉이사로 구성됐으며 모교에서도 金夏奭특임부총장, 張在盛학생처장, 발전기금 南益鉉상임이사, LA미주센터 張正柱소장 등이 함께 했다.

이번 행사에는 미주 각 지역에서 평의원 60여 명을 포함해 1백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휴폐



이지 문제, 장학기금 운영, 회보 발행 등 미주동창회의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미주동창회는 시카고지부, 남가주지부, 뉴욕지부 등이 2년씩 돌아가며 미주총동창회 본부 역할을 한다. 시카고지부는 올해가 마지막이며 내년부터 2년간 남가주지부에서 평의원회 개최 및 회보를 발행한다. (3면에 계속)

◀본회 林光洙회장(左)이 미주동창회 宋舜英회장에게 격려금 3천달러를 전달했다.

관악출추

모교의 개교 원년 찾기 운동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일부 역사교수들의 돌발적인 반론제기로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된다. 모교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겠지만 반론의 핵심내용은 서울대의 정체성 문제. 1895년에 설립된 법관양성소가 서울대 정체성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국립대학이면서 고등교육기관(대학)이자 종합대학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는지는 것이다.

요컨대 특정 교육기관의 출발을 곧 서울대 전체의 시작으로 보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법관양성소는 애초부터 관료를 양성하는 직업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진리탐구의 전당이라는 서울대의 건학목표에도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서울대가 미군정 치하에서 통합한 경성대학교와 9개 전문대학 중 원년이 가장 빠른 법관양성소는 법학교→경성전문학교→경성법학전문학교로 개편되면서 법통이 서울법대로 이어졌고, 커리큘럼과 교육내용도 오늘의 법대에 비해 손색이 없었다.

특히 조선왕조가 기독교 이념을 중시했던 서양 근대국가들과는 달리 유교국가로서 법치이념을 준립의 기반으로까지 삼았던 점을 감안할 때, 법관양성소는 우리의 근대적 관립고등교육기관으로 국가운영에 가장 필요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해왔으며, 이같은 인재양성 목표는 건학목표의 충분한 조건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시대나 대학은 학문연구와 인재양성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해왔다. 1636년에 교사 1명에 학생 9명으로 문을 연 하버드대는 목사양성소로 출발했다. 일본의 히도

된 기존 고등교육기관(전문학교)들을 열거한 다음 ‘이 모든 학교는 폐지되며 국립서울대학교에 흡수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서울대학교는 새로운 대학교의 ‘신설’이 아니라 종합대를 만들기 위해 기존 고등교육기관을 하나로 통합해 새로운 체제로 개편하고 거기에 ‘국립서울대학교’라는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만약 서울대가 신설된 것이라면 1946년 이전의 역사나 전통은 없어야 한다.

모교의 개교 원년 조정은 역사 바로 세우기

츠바시(一橋)대는 1875년 상법강습소로 출범한 것을 개교 원년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법관양성소가 진리탐구가 아닌 관료양성위주의 인재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서울대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또한 서울대에 통합된 10개 학교는 1946년 8월 22일 공포한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라 ‘폐지’됐으므로 폐지된 어느 한 학교의 설립시점을 서울대 전체의 개교 원년으로 삼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여기서 ‘폐지’라는 말은 법령의 레토릭일 뿐이다. 동 법령 제5조는 오늘날 각 단과대학으로 발전

그러나 현재 서울대의 각 단과대학들은 1946년 이전에 이미 상당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모교의 역사가 공대, 농

생대, 법대, 사대, 의대, 간호대 등 대부분의 단과대학 역사보다 짧게 잡혀 있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이다. 서울대가 구한말의 법관양성소나 한성사범학교 등의 관립교육기관을 모태로 삼지 않은 이유는 이들을 끌어들이었을 경우 일제식민시대의 경성제국대까지 꺼안아야 하는 딜레마 때문이었다. 일제에 대한 거부감을 이유로, 구한말 우리의 자주적인 교육기관의 역사가 서울대 역사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자학적인 역사관이다. 이런 의미에서 개교 원년 찾기는 모교의 잃어버린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이다. (徐玉植은설위원)

느리나무광장

소통이 정치권의 화두다. 李明博대통령은 일은 제법 한다. 그러나 소통을 잘 못한다. 그래서 지지율(50%)은 높은데 호감도(20%대)는 낮다.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 할 수 있을까.

미국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1981~1989)은 소통에 뛰어났다. 젊은 시절 그는 지역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했다. 배우로 스크린을 누비기도 했다. 그때 몸으로 익힌 대중과의 소통 능력이 탁월했다. 늘 국민 편에 서서 고민하고 있음이 피부로 느껴지게 말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속 터지게 하지요. 그 사람들 때문에 저도 미치겠습니다. 그럼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 볼까요.” 레이건은 이런 식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풀어갔다. 매번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이란 말로 자신을 낮출 줄도 알았다. 미국 ABC방송의 명앵커였던 테드 카플조차 이런 레이건을 ‘소통의達人’으로 불렀다.

레이건의 취임 후 7개월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

다. 허니문 기간도 없었다. 두 달도 안돼 지지율마저 흔들렸다. 새 경제정책은 난관에 봉착했다. 3월엔 저격사건이 일어났고, 8월엔 전국의 항공 관제사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실업률은 치솟았고, 경기도 침체했다. 그러나 레이건은 용기를 잃지 않고 일관되게 정책을 집행했다. 레이건의 첫 홍보비서였던 데이비드 거겐은 “(국민들이) 어려운 과제를 풀어가는 대통령을 보면서 그의 인품에 신뢰를 보내고 그때부터 말이 통했다”고

‘모닥불 피워놓고...’

崔英勳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본보 논설위원



한다. 설득력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홍보 전략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과의 소통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난제를 해결하려는 대통령의 용기와 신념, 일관성이다.

소통과 말 잘하기는 다르다. 소통은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다. 그래서 寬容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나의 의견이나 신념이 어떤 경우엔 옳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열린 자세가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소통을 잘하려면 잘 들어야 한다. 누군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도 꼭 참고 듣고 있어야만 한다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말만 하는 사람은 소통할 수 없다. 입은 하나인데 귀가 둘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휴가철이다. 밤 바닷가에 가면 꼭 모닥불을 피워 보자. 나무를 너무 촘촘하게 쌓아 놓으면 연기만 날뿐 불이 잘 붙지 않는다. 바람이 통하도록 듥성듬성 쌓아야 불이 활활 타오른다. 그리고 관솔이나 종이 같은 불쏘시개가 있어야만 큰 장작에 불을 붙일 수 있다. 불쏘시개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자세는 소통에도 꼭 필요하다. 모닥불을 피워 여름밤의 낭만을 느끼면서 소통의 원리도 체감하자.

관악시단

그대 時의 호수로

吳龜鎭(조선공학65 - 69)
조선건설턴트·시인

밤하늘 낮게 기운 달빛이
고독한 그대의 방을 밝히고
신록을 흔들고 지나는 바람이
불면의 빈 벽에 그림자 짓도록
불을 끄고 커튼을 밀쳐 두자

소리 없이 떨어지는 작은 별들이
지친 눈동자에 다시 꿈을 심고
풀잎에 맺히는 밤이슬이
메마른 그대의 가슴을 적시도록
밤새 창문을 열어 두자

대지를 감싸는 한밤의 정적에
갖은 번뇌와 망상이 잦아들면
명상의 호수에 구름은 걸히고
박꽃 같은 시의 흰 돛이
수평선 저 멀리 떠 오리라.

동문칼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2006년 기존의 규장각과 한국문화연구소가 통합돼, 종합적인 한국학연구기관으로 출범했다. 이 글에선 모처럼의 기회인 만큼 동문 여러분들께 모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현재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역사, 문학, 어학, 사회, 과학사, 예술 등 한국학 전반에 걸치고 있다. 물론 각 분야의 연구자가 모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상근 연구원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다. 선택된 연구 주제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하는 형태가 다수이다. 이와 함께 한국연구재단 등에 신청한 연구계획이 채택된 사업단들에게 연구공간을 마련해주고 행정적 지원을 하여 연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인연구자가 박사 후 과정 등에 선발된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학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외국인 방문학자들에 연구실 등의 편의를 제공하며, 일정

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어 매년 수 명의 외국인 학자들을 선발해 초빙한다. 외국대학에서 한국학 논문을 준비하는 박사과정의 학생들에게는 따로 방문학생 프로그램이 있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영문 한국학 잡지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를 매년 2권 발행하고 있는데, 이 잡지는 국제적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약간의 난항을 거쳐 버클리대 출판부와 협약을 맺어 한국학 저서를 매년 영문으로 출판하기로 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명실상부하게 세계 한국학 연구의 중심 연구기관으로 그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HK(인문

한국)사업에 참여해 HK교수 4명, HK연구교수 7명을 선발했다. 이밖에 학예관, 학예사, 조교 등이 10여 명 근무한다. 이런 교수직, 학예연구직, 행정직, 기능직 등을 망라해 현재 규장각에는 80여 명이 상근하고 있다.

이런 인적 자원에 못지 않게 주요한 것이 본 연구원에 소장돼 있는 규장각 도서관이다. 인문사회계 연구기관의 무게는 그 소장 자료의 질과 양에서 일차적으로 찾을 수 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규장각 도서 14만8천여 권과 그 밖의 고도서와 고문서 1만여 점이 있어 합계 고전적 자료 24만여 점이 있다. 국보 7종과 보물 25종이 있으며, 그 중 3종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규장각 자료의 많은 부분이 세계 유일본이므로, 이의 보존을 위해 시설과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렇듯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또한 적지 않다. 연구 영역이 확대되고 국제화가 추구됐지만, 외형적 팽창과 당위론적인 표방에 비해 실제 상응하는 내실이 있느냐이다. 한국학 관련 연구소는 국내 각 대학에 거의 다 있는데, 규장각한국학연구



盧泰敦

(사학67 - 71)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장

한국학의 국제화가 당면 과제

학연구원 나름의 특성과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국제화 이전에 국내 한국학 연구 자체의 심화가 더 긴급한 과제가 아닌가 등의 물음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장기간의 실천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인데, 일차적인 실마리는 규장각 자료를 활용한 조선 후기와 근대 초기에 대한 연구의 심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 뒤 고종세와 현대로 그 연구의 외연을 확대하는 방향이 상정될 수 있다. 오랜 기간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이 작업을 수행기 위해선 그간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급속한 성장을 뒷받침해온, 올 연말로 끝나는 한국학장기초연구사업과 같은 서울대학교 당국의 진흥책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협력·영광

발행인 林光洙
편집인 孫一根
인쇄인 朴薦壽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임시주소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219호)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e-메일 snua@paran.com

논설위원 金哲洙, 林炯斗,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李啓聖, 金鎮國, 崔英勳, 吳在錫, 李容式, 李先敏, 李相起, 蔡耕玉, 許文明, 金永燮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金南柱, 邊榮顯 광고부장 金千鶴

미주동창회 제19차 평의원회 성황

개교 원년 찾기 사업에 공감도

미주동창회(회장 宋舜英)는 지난 6월 11일 미국 시카고 링컨서 메리어트 리조트 그레이트레이크룸에서 본국 순방단 및 평의원 환영 전야제를 개최했다.

미주동창회 宋舜英(정치52-56)회장은 본국에서 참석한 동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거명하며 환영의 인사말을 건넸다. 宋회장은 “林光洙회장께서 23대 회장으로 연임되신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백년대계의 일환인 장학빌딩 완공을 눈앞에 두고 또 모교의 개교 원년 찾기 사업도 병행해 관련 서적까지 출간하는 등 모교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해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신 회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미국 각지에서 대표를 맡고 계신 평의원들과 그 가족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곳 시카고 행사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한 밤”이라며 “여기 모이신 분들은 모두 이역만리 타국인 미국에서 각박한 세상살이를 이겨내며 열심히 일해 그 실력과 인품을 인정받고 있는 자랑스러운 서울대 동문들”이라고 격려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동문의 정을 나누며 서로 돕고 격려하는 우리들의 광장과 동지가 있다는 것이 마음 든든하고 믿음직스럽다”며 미주동창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宋舜英회장과 임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미주 동문들은 林회장의 축하 중 개교 원년 찾기 사업 설명 대목에서는 박수로 깊은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모교 金夏奭특임부총장은 미주 동문들에게 모교의 국제화 지표 등 발전 현황을 소개하며 “본교 내에 외국인 교수가 70여 명이 되고, 초빙·방문교수를 합하면 2백11명, 외국인 학생은 3천7백명 정도 돼 향후 학생과 교수의 외국인 비율을 30%로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속임부총장은 이날 행사에서 40년 전 유학 시절 함께 공부했던 동문을 만나 해후의 기쁨을 맛봤다.

11개 지역에서 1백여 동문 모여

이번 행사에는 미국 23개 지부, 캐나다 3개 지부 가운데 뉴욕, 남가주, 시카고, 필라델피아, 뉴잉글랜드, 휴스턴, 워싱턴DC, 샌프란시스코, 온타리오, 하트랜드,

오하이오지부의 회장 및 평의원과 일반 동문 1백여 명이 참석했다.

각 지부 회장과 평의원들은 전야제 행사에서 소속 지부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李堦珍교수 남북관계 특강

한편 이날 전야제 마지막 순서로 李堦珍(정치55-59)동문의 학술강연 및 공개 토론회가 이어졌다.

Claremont McKenna College 국제정치학 석좌교수인 李동문은 재미 한국계 정치학자 중 가장 학문적 업적이 많은 세계적인 석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립대 사회과학대 학장, 캔사스대 문리대 부학장, 클레몬트 맥케나 칼리지 국제전략연구소장을 역임했으며 영문 저서 23권과 학술 논문 1백여 편을 출판했다.

‘미국정책과 남북관계’란 제목으로 강연에 나선 李동문은 천안함 사건의 원인에 대해 대청해전 패배에 대한 보복,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가, 금강산 관광 중단 등 정책에 대한 불만 표시, 군부 강경세력의 총성심 경쟁, 한반도 분열 조장, 내부 결속 등의 요인을 들었다. 李동문은 “과거 북한이 남한에 가한 여러 테러들에 대해 한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고 그에 대한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어서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 가능성도 낮게 봤다. 李동문은 “중국, 러시아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 결의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덧붙여 “우리는 중국에 대한 환상을 빨리 깨면 낫수록 좋다”며 “역사적으로 중국이 강국이었을 때 우리나라에 무례하게 대했던 여러 사건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규모 충돌은 가능성이 있지만 대규모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에서 전면전을 감행하겠다고 종종 협박하지만 궁극적으로 자기 나라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는 전쟁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 이와 관련해 “중국이 자국의 안정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북한이 쉽사리 결정할 수 없을 것이며 한편으로 북한이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일은 남북관계와 통일에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林光洙회장 격려사 <요지>

존경하는 평의원 동문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1년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고 기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宋舜英회장님의 노력으로 제10대 집행부와 미주 23개, 캐나다 3개 지부가 더욱 단단히 뭉쳐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런 마음 가득합니다.

특히 지난해 李典九전임 회장님의 의지와 노력으로 12년만에 발간된 미주동문 인명록은 선후배 동문간 교류를 더욱 넓히는 동시에 현 집행부의 추진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게 할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宋舜英회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Brain Network 구성 작업도 성공적으로 이뤄져 모교의 세계 명문대학 진입에 커다란 역할이 되길 바라며 미주 동문들의 화합과 단결의 장이 될 지중해 크루즈 여행도 성황을 이룰 것이라 믿습니다.

서울대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일 장학빌딩 건립은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문과 그 가족은 물론 후세까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애용하는 만남과 대화의 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교가 젊은 대학에서 전통에 빛나고 유서깊은 명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년 전부터 여러 차례 각계 동문들과 동창회 모임을 거쳐 만든 ‘모교에 대한 개교 원년 재조정 촉구 건의안’이 작년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교수협의회와 단과대학장회의, 그리고 공청회를 거쳐서 평의원회 의결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총동창회는 앞으로도 모교가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고 세계 명문대학으로 나아가는 데 이러한 논증자료가 필요하다면 동문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내어 설득력 있고, 이해하기 쉬운 단행본을 발간해 모교를 도울 것입니다.

홈페이지 snuua.org로 통합

지난 6월 12일 오전 9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제19차 평의원회의는 50여 명의 평의원들이 참석해 6시간에 걸쳐 동창회 현안 문제 해결과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金正周(식물60-64)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宋舜英회장의 10대 회장단 인수인계 보고, 李典九(임학60-64)전임 회장의 전 회의록 낭독, 李勝子(영어교육60-64)총무국장의 사업보고, 高秉喆(법학59졸)편집위원장의 동창회보 보고, 朴 淑(의학64-70)재무국장의 재무보고, 朴泳圭(농경제57-61)감사의 감사보고, 吳仁錫(행정58-62)발전기금위원장의 기금 현황 보고, 具璟會(의학59-65)관악후원회장의 동창회 지역 분담금 책정액 및 납입현황 보고, 관악후원회 보고, 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미주동창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매월 6천부의 동창회보를 발간하고 ‘브레인 네트워크’ 조직을 통한 강연회 개최, 동문 주소록 업데이트, 지중해 크루즈 여행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8만6천4백달러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한편 동창회는 지난해 8월부터 우편 할인 혜택을 받아 매월 회보발송 등의 비용으로 1천달러 이상을 절약하고 있다.

吳仁錫발전기금위원장은 기금 현황 보고를 통해 모금을 시작한 지 9년만에 1백만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모금을 위해 2백여 동문이 동참했으며 이 기금으로 그동안 예일대로 유학 오는 모교 후배들을 지원했다. 작년에는 4명의 재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전달했으며 본국 모교 발전기금에 60만달러를 기부했다.

이날 토의 안건으로 상정된 동창회장 인선위원회 구성은 전·현직 회장, 차기 회장, 그 밖에 평의원 중 2명을 포함해 총 5명으로 하기로 했다. 또한 미주동창회 공식 웹사이트는 www.snuua.org로 통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宋舜英회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Brain Network 구성 작업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모교의 세계 명문대학 진입에 커다란 역할이 되길 바라며 미주 동문들의 화합과 단결의 장이 될 지중해 크루즈 여행도 성황을 이룰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4면에 계속)

평의원회 만찬서 공로패 등 시상



林光洙회장·崔仁甲동문

평의원회의가 끝난 뒤 오후 7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평의원 및 본회 방문단 환영 만찬이 거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동창회와 모교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동문들에게 공로패를 시상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이 알래스카지부 尹悌重(축산55-62)회장, 李升燦(농생물55-60)前온타리오지부 회장, 오하이오지부 崔仁甲(금속공학57-62)회장, 趙時豪 前오하이오지부 회장, 李典九 前미주동창회장, 盧英一(의학62-68)前시카고지부 회장, 金昌洙(약학64-68)前미주동창회 감사, 諸永惠(의류71-75)前남가주지부 회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또 모교 金夏奭특임부총장이 李長茂총장을 대신해 제6대 미주동창회 李龍洛(기계공학48-53·영광부문)회장, 뉴잉글랜드지부 尹相來(수의62-66·참여부문)회장, 세종문화회 朴鍾姬(의학69-75·사회기여부문)사무총장에게 ‘자랑스러운 미주동문상’을 수여했다.

그밖에 吳仁錫발전기금위원장, 李典九 前미주동창회장, 李慶林(상학64-71)발전기금위원에게 발전기금 공로 총장패를 증정했다.

상패 수여에 앞서 林光洙회장은 미주동창회에 격려금 3천달러를 전달하기도 했다.

林光洙회장은 수상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축하의 큰 박수를 보낸다”며 “여러분의 헌신적인 업적을 기려 동창회 발전의 귀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공식 행사 후 막을 올린 환영음악회에는 피아니스트 李昭延(기악84-88)동문, 바리톤 金琪奉(성악87-95)동문, 소프라노 羅恩實(성악87-91)동문이 출연해 그리운 금강산, 향수 등 아름다운 노래와 연주로 분



金夏奭특임부총장·吳仁錫동문

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어진 동문 노래자랑 시간에 金夏奭특임부총장, 관악회 明泰鉉 이사 등이 멋진 노래 솜씨를 뽐내 동문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골프대회로 행사 마무리

이번 미주동창회 행사는 골프대회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6월 13일 리조트 내 Crain Landing Golf Course에서 열린 골프대회에는 60여 명의 동문이 참가해 라운드를 즐겼다.

이날 경기결과(신페리오 방식 적용) 네트스코어 78타를 기록한 宋昌基(의학65-71)동문이 종합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남자 메달리스트에 78타를 친 林鍾國(성악81줄)동문, 여자 메달리스트에 86타를 친 諸永惠동문이 올랐다.

崔仁甲동문 장학기금 출연

이번 행사에서 오하이오지부 崔仁甲(금속공학57-62)회장이 본회 林光洙회장에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1천달러를 추가로 전달했다.

崔동문은 2008년 1천달러를 보내온 데 이어 지난해에는 지부 회원들을 독려해 기부명으로 7백달러를 출연한 바 있다.

崔동문은 “앞으로도 계속 미주 동문들의 소액 모금을 독려해 이역만리에서도 모교 사랑을 실천하고 선배 동문들의 마음을 하나로 잇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주동창회 발전에 헌신해온 崔동문은 2009년 4월 미국 Ski Patrol에서 20년간 무료봉사한 공로로 표창장을 받았으며, 지금도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스키장에서 부상당한 환자들을 응급치료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6월 16일 미국 뉴욕 인근에 위치한 West Mountain Ridge에서 정기 산행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주평의원회 참가 후 뉴욕지부를 방문한 본회 林光洙회장을 비롯해 李俊行회장, 李典九 前미주동창회장, 미주한국통신사 韓昌燮사장 등 20여 명의 동문이 참가해 우의를 다졌다.

산행 후 뉴욕지부 韓京秀회장이 주최한 환영만찬에 참석한 동문들은 林光洙회장의 모교의 국제화 지표 및 발전현황, 장학빌딩을 통한 장학금 및 교수연구비 지원

서울대 115년의 꿈



황 호 택 (동아일보 논설실장)

모교 개교 원년 찾기와 관련해 비동문인 동아일보 황호택 논설실장이 지난 6월 7일 동아일보에 게재한 칼럼을 참고로 전재한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2007년 대외협력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외국에 서울대를 소개할 기회가 자주 있었다. 조 교수는 “수백 년 역사를 지닌 외국 대학의 사람들에게 서울대가 개교한 지 60년을 조금 넘었다는 안내 자료를 주다 보면 스스로 끌리는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영국 옥스퍼드대는 올해로 개교 914주년이고 미국 하버드대는 374주년, 일본 도쿄대는 133주년을 맞는다. 오래됐다고 반드시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대학의 연륜은 그 나라 고등교육의 역사와 학문의 전통을 보여준다.

서울대는 미군정 하에서 경성대학교와 9개 전문학교를 합쳐 종합대학으로 출범한 1946년을 개교 元年으로 잡는 바람에 이런 디스카운트를 자초했다. 경성제국대학(광복 후 경성대학)은 일본인 교수와 일본인 학생이 주류를 이루던 식민지 대학이었다.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국사학)는 “경성제대에 대한 거부감으로 광복 이전에 세워진 9개 전문학교도 서울대 校史에서 추방됐다”고 설명한다.

서울대가 통합한 9개 전문학교 중 원년이 가장 이른 법관양성소는 1895년 설립 첫해에 50명이 입학해 47명이 졸업했다. 법관양성소의 커리큘럼은 오늘날 법과대학의 필수과목이 다 들어 있어 한국 최초의 근대적 법과대학으로 부르기엔 손색이 없다. 법관양성소는 법학교→경성전수학교→경성법학전문학교로 개편되다가 法統이 서울대 법대로 그대로 전수됐다. 서울사대도 같은 해 세워진 한성사범학교의 법통을 물려받았다. 1904년 설립된 농상공학교는 서울대 농대로 이어졌다.

校史에서 사라진 법관양성소

조선총독부가 한국인의 고등교육을 억압하는 바람에 대한제국이 세운 교육기관들은 대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전문학교 수준에 머물러야 했다. 조선총독부는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좌절시키기 위해 1924년 경성제대를 세웠다. 서울대는 경성제대의 후신이 아니다. 경성제대는 서울대로 통합한 10개 교육기관의 하나였을 뿐이다. 서울대로 통합된 전문학교들은 법관양성소를 필두로 대한제국이 교육을 통해 근대화를 달성하려던 개혁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서울대는 1946년 대통합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근대적 교육을 통해 국권을 바로 세워보려던 悲願의 역사를 지워버린 것은 잘한 일이 아니다. 서울대 법대는 법관양성소 졸업생인 이준 열사와 함태영 전 부통령을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으로 현창한 바 있다. 단과대학의 역사는 한 세기를 넘겼는데, 종합대학교가 된 날로부터 개교 원년을 따지는 것은 기형적인 역사인식이다. 이 열사나 함 부통령 같은 애국지사들을 廢校의 미아로 만들어버린 결례다.

여러 교육기관이 합쳐져 종합대학이 된 경우 가장 오래된 기관의 설립일자를 원년으로 삼은 대학도 있고, 통합 시점을 원년으로 삼은 대학도 있다. 대학의 원년을 정함에 있어 세계적으로 공통된 기준은 없다. 어디까지나 대학 구성원의 합의와 선택의 문제이다. 연세대는 1957년 연희대와 세브란스의대가 통합해 오늘의 모습을 갖추었다. 연세대는 1884년 고종황제의 명으로 세워진 濟衆院을 효시로 삼는다.

세계 유수의 명문대학들도 그 시작은 미약했다. 거대한 종합대학이 된 후부터 원년을 따진다면 하버드대도 개교 원년을 한참 디스카운트해야 한다. 하버드대는 미국 플리머스에 최초로 유럽인들이 이주한 지 16년 만인 1636년에 설립됐다. 처음에는 교사 1명에 학생 9명으로 시작한 목사 양성소였다. 1886년 5월 31일 미국 북감리교 여성교부 선교사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서울 정동의 자택에서 여학생 한 명을 데리고 수업을 시작했다. 이것이 124주년을 자랑하는 이화여대의 최초 모습이다. 서울 공릉에 있는 국립 서울산업대는 올해 개교 100년을 알리는 대형 아치를 세워놓고 1910년 설립된 어의동실업보습학교로부터 한 세기 내려온 학풍을 자축하고 있다.

元年 바로잡아 세계로 도약해야

서울대의 국제적 위상은 대한민국의 자존심과도 연관된 문제다. 서울대가 한국의 경제규모에 걸맞게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려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의 명문대학들과 경쟁해야 한다. 해외에서 심사하는 대학평가에서 학문의 전통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외 대학의 사례를 살펴해보더라도 서울대는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51년의 역사를 별 이유 없이 내팽개친 경우에 해당한다.

대한제국이 제국주의 열강의 발톱 아래서 신학문을 가르쳐 나라를 구해보려던 救國교육의 역사를 복원하는 것은 서울대의 잃어버린 뿌리 찾기가자 격량의 시대를 살다간 선배들에 대한 예의다. 서울대가 법인화를 계기로 한 세기가 훌쩍 넘는 개교 원년을 회복해 세계 속으로 도약할 기회를 잡기 바란다.

뉴욕지부 골든클럽

산행대회로 친목 다져

뉴욕지부 골든클럽(회장 李俊行)은 지난



계획, 모교 개교 원년 찾기 사업 등의 설명을 듣고 박수로 큰 감명을 표시했다. 60세 이상 70여 명의 동문으로 구성된 골

든클럽은 매월 골프·등산모임과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타지부에 골든클럽 창설을 전파하고 있다. (南)

장학빌딩 건립기금 계속 줄이어

金東吉회장 1억원 쾌척

지난 6월 1일 경인양행 金東吉(화학교육57-61)회장이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1억원을 쾌척했다. 김회장은 1971년 경인양행의 전신인 신오화학공업사를 설립하고 1980년 염료연구소 세워 첨단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벤처기업상과 5천만불 수출탑(2003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洪禮杓회장 총1억원 약정

한편 2007년부터 3년에 걸쳐 장학빌딩 건립기금 5천만원을 출연한 치과대학동창회 洪禮杓(치의학

65-71) 회장이 지난 6월 17일 5천만원 추가 출연을 약속했다. 부인 김영숙 여사와 공동명의로 특지장학회를 설립해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金東吉회장



洪禮杓회장

1천만원 출연 이어져

지난 5월 27일 유외과의원 柳亨祿(의학57-63)원장이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1천만원을 보냈으

며, 6월 9일 법무법인 로콜 孫壽一(법학74-78)변호사가 1천1백만원으로 입금했다. 기금을 출연한 동문은 개인 명의의 '기금장학회'를 설립하게 되며, 장학빌딩 건립 후 발생되는 임대수익금으로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간호대학동창회

2기 멘토·멘티 결연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洪京子)는 지난 6월 15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강당에서 간호대학과 공동으로 2기 멘토·멘티 결연식을 가졌다. (사진)

이날 결연식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崔晶秀(간호76-80)연구원, 경상대 殷瑛(간호81졸)교수, 단국대 金鍾卿(간호82졸)교수, 충주대 金賢淑(간호82졸)교수, 선문대 金春美(간호79-83)교수, 을지대 金允美(간호80-84)교수, 관동대 金惠媛(간호81-85)교수, 고려대 秋眞娥(간

호85-89)교수, 서울아산병원 李善喜(간호85-89)간호팀장·김지혜(간호95-99)수간호사, 모교 병원 남승남(간호86-90)·최윤진(간호91-95)·鄭熙靜(간호92-96)수간호사, 삼성서울병원 김경숙(간호87-91)·이정림(간호88-92)파트장, 부산대 정인숙(간호87-91)교수, 경원대 박

“누가 李동문을 모르시나요?”

피묻은 태극기·칼 건넨 부상병과 장교 찾아

최근 육군본부가 6·25전쟁 당시 美소대장에게 ‘피 묻은 태극기’와 칼 한자루를 건넨 부상병과 한국 군인 찾기에 나섰다. 美육군 73전차대대 소속 소대장이었던 로버트 슬로트(81세)씨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3년 1월쯤 서부전선인 임진강 부근 켈리고지, 베티고지, 빅노리고지 등에서 왼쪽 옆구리에 포탄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당한 한국군 병사를 응급치료해 줬다.

부상병은 치료 후 감사의 표시로 슬로트 씨에게 피묻은 태극기를 건네줬다. 이후 슬로트 씨는 부상병을 1사단 화기중대 李모 중위에게 인계해주고 고마움의 표시로 칼 한자루를 받았다. 미국 텍사스주 패리시에 거주하는 슬로트 씨가 지난해 12월 주미 한국대사관에 피

묻은 태극기를 기증하며 이름도, 계급도 모르는 그 부상병과 서울대 출신으로 기억되는 당시 李모 중(소)대장을 애타게 찾고 있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이름도, 생존 여부도 모르는 인물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사연의 주인공을 아시는 서울대인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육군본부 병적관리과 042-551-4332/슬로트 씨 연락처 903-784-2469〉



6·25전쟁 참전한 로버트 슬로트 씨

은준(간호89-93)·공은희(간호89-95)교수, 분당 모교 병원 이혜아(간호89-93)수간호사, 모교 보대원 金泓修(간호91-95)교수 등이 멘토로 참여했다. 멘티로는 2·3학년 재학생 20명

이 선발됐다. 洪京子회장은 “이번 2기는 80, 90년대 젊은 학번들이 멘토로 참여해 재학생 후배들과 좀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충남지부동창회

골프대회 행사 개최

대전·충남지부동창회(회장 吳應準)는 지난 6월 5일 대전 유성CC에서 골프대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吳應準회장을 비롯해 한국화학연구원 吳憲承(화학65-69)원장, 충남대 宋容浩(건축70-78)총장 등 2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친목을 도모했다.

의과대학동창회

李裁興동문 골프 우승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朴容晳)는 지난 6월 20일 인천그랜드CC에서 90여 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제8회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경기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니어부 : 우승 李裁興(의학57-61)동문, 메달리스트 全炳斗(의학62-68)동문, 준우승 李啓平(의학59-65)동문, 롱게스트상 金國起(의학61-67)동문, 니어리

스트상 金豐明(의학61-67)동문 ▲일반부 : 우승 金容民(의학78-84)동문, 메달리스트 黃在廣(의학86-91)동문, 준우승 孫成基(의학81-87)동문, 롱게스트상 嚴載皓(의학80-86)동문, 니어리스트상 高永瑾(의학70-76)동문 ▲여성부 : 우승 朴善玉(의학80졸)동문, 메달리스트 李吉女(의학51-57)동문, 준우승 權嬉庭(의학75-81)동문, 롱게스트상 李相旻(의학81-87)동문, 니어리스트상 金美靜(의학81-87)동문

GLP동창회

15기 동기회 단체 우승

글로벌리더십과정동창회(회장 李鍾大)는 최근 경기도 하남 캐슬렉스CC에서 제7회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경기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체 우승 : 15기 동기회, 준우승 : 8기 동기회 ▲개인전 우승 : 신극철(18기)동문 ▲메달리스트 : 강창석(14기)동문



관악골프회

徐廷和회장에 공로패

관악골프회(회장 徐廷和)는 지

난 5월 20일 경기도 고양시 뉴코리아CC에서 제165회 정기 모임을 가졌다. 이날 경기 후 본회 林光洙회장이 徐廷和(법학51-55)관악골프회장(사진 左)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한나라당 상임고문인 徐廷和회장은 1992년부터 동창회 부회장으로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결속에 이바지했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관악골프회장으로 봉사하며 동창회 활성화와 모교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관악골프회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정기 모임을 개최하며 현재 7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는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徐廷和관악골프회장, 李禮植·琴震鎬·劉鐘海·韓斗鎭·崔泰祥·李仁子·金讚淑·孔大植·禹仁性·李炯均·鄭男·趙容直·黃彩皓·朴榮敏·鄭八道동문 등이다.

SPARC동창회

安相元동문 골프 1위

과학기술혁신 최고전략과정동창회(회장 金權震)는 최근 경기도 화성시 리베라CC에서 16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를 위해 林澤周·裴斗植고문, 洪起南 명예회장, 金權震

회장, 金尙熙자문위원, 河相哲수석부회장, 鄭銖鍾·金東泓·沈裁晟·金英文부회장, 房龍洙재무국장, 宋鎭奎사업국장 등이 금품을 협찬했다. 경기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체 우승 : 12기 동기회 ▲개인 우승 : 安相元(5기)동문 ▲메달리스트 : 權南赫(1기)동문 ▲준우승 : 房龍洙(16기)동문 ▲최다파상 : 趙信燮(응용수학70-74)동문

AMPFRI동창회

조찬강연회 가져

식품·외식산업보전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申一汕)는 지난 6월 15일 서울 태평로1가 코리어나호텔에서 이주대 평생교육원 조남선 강사를 초청해 ‘행복한 삶의 동반자’를 주제로 조찬강연회를 개최했다. (南)

경대원동창회

정기총회서 李鎭芳회장 선출

경영대학원동창회(회장 金英大)는 지난 6월 17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11대 회장에 대한해운 李鎭芳(경영 67-71·경대원71-74)회장을 선출했다.

신임 李鎭芳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동문들의 보다 더 적극적인



李鎭芳(左)·金英大동문

참여와 모교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李회장은 그동안 동창회의 발전과 전문대학원 창립에 크게 기여한 金英大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모교 경영대학 安泰植학장도 金회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하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동승클럽

金定姬동문 포럼 특강

문리대 65학번 모임인 동승클럽(회장 朴熙俊)은 지난 6월 11일 서울 삼성동 현죽빌딩에서 37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金定姬(영문65-72)前가톨릭대 교수가 연사로 초빙돼 ‘웃음의 윤리학’이란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포럼 후 최근 흡인원을 기록한 秋昊卿(철학65-69)동문이 인근 중식당에서 열린 만찬 행사 비용을 협찬했다. 또 崔一玉(미학65-69)동문이 지난 6월 발표한 소설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동문 전원에게 선물했다.

환경대학원동창회

새 회장에 환경부 李萬儀장관

환경대학원동창회(회장 姜吉夫)는 지난 6월 30일 서울 강남 메리어트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환경부 李萬儀(환대원73-75)장관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李회장은 취임사에서 “역대 회장님들께 자문을 구하면서 그 분들이 해왔던 일들을 잘 이어



李萬儀(左)·姜吉夫동문

나가고록 하겠다”고 밝혔다.

李회장은 지난 2년간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수고한 姜吉夫전임회장과 吳榮泰·李敏雨·李承漢부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국토해양부 鄭鍾煥(SGS 3기)장관이 4대강 사업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보대원동창회

4회 한마음 축제 성황

보건대학원동창회(회장 金旻永)는 지난 6월 12일 청계산에서 제4회 한마음 봄맞이 축제를 개최했다.

동창회 산하 박사회(회장 李善子)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金旻永회장, 모교 보대원 白道明원장, 權純晩부원장을 비롯해 HPM동창회 李相昊회장, AMPFRI동창회 申一汕회장 등 1백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朴大根(보

대원63-65)·金旻永(보대원72-74)·李善子(간호61-65·보대원65-67)·申一汕(AMPFRI 14기)·金判起(수의81-85·보대원85-87)·金鍾五(보대원79-82)·尹寅熙(보대원79-82)·李龍水(생물교육60-64·보대원84졸)·林國煥(수의69-73·보대원76-78)·文璟煥(보대원90-92)·崔京鎬(수의88-93·보대원93-95)동문 등이 금품을 협찬했다.

2007년 시작된 한마음 봄맞이 축제는 석·박사 동문들과 보대원 산하 특별과정동창회가 매년 돌아가며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AIC동창회

2회 홈커밍데이 행사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동창회(회장 李世漢)는 지난 6월 5일 모교 관악캠퍼스 행정대학원 신관에서 제2회 홈커밍데이 행사를 가졌다.

25기, 26기 동기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李世漢회장, 모교 행정대학원 崔鍾元원장을 비롯해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李世漢회장은 “새로 지은 행정대학원 건물에 들어오면서 우리 동문들의 작은 성의가 이 공간에 녹아들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올랐다”며 “오늘 모인 AIC 동문 모두가 행정대학원의 새 시대를 여는데 기여했고 앞으로도 계속 동참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방송인 盧正烈(신문89-95)동

문의 사회로 문을 연 2부 행사는 명창 안소라 씨의 축하공연과 무잡한 만찬으로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AFP동창회

첫 인문학포럼 열어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동창회(회장 尹東漢)는 최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8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인문학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성공회대 申榮福(경제59-63)석좌교수가 ‘21세기와 인문학’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尹東漢회장은 “강연회는 보통 조찬 모임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충분한 진고를 나누기 위해 저녁 시간에 하게 됐다”며 “인문학 포럼을 분기별로 계속 이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문작품 지상전시회



‘寒林’, 수묵담채, 95×70cm, 2009.

崔愛敬作

〈작가약력〉

- ▲57~60년 모교 회화과 졸업
- ▲국전 3회 입선
- ▲61~64년 墨林會展 출품
- ▲67년 한국화회전
- ▲79년 미술단체 초대연립전
- ▲80년 혼유회
- ▲89년 한국화 신형상전
- ▲95년 5·6 서울전
- ▲96년 미술대학 동창전
- ▲06년 한국·인도 교류전
- ▲07년 White Line전
- ▲한국화가

ACPMP동창회

음악회로 친목 다져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동창회(회장 徐綜郁)는 지난 6월 8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잔디밭에서 7기 동기회(회장 기세도) 주관으로 ‘제5회 관악음악회’를 개최했다.

방송인 박나림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徐綜郁회장, 모교 李鉉秀주임교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金興洙원장을 비롯해 2백30여 명의 동문 가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徐綜郁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교류의 장을 넘어 삶을 재충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교 음대 남성중창단의 ‘Stein song’으로 문을 연 음악회는 초대 가수 최백호 씨, 홍주현 씨, 이안(국악99-04)동문 등이 출연해

히트곡을 선사했으며 이어진 동문 노래자랑 시간을 통해 화합의 장을 연출했다.

특별과정동창회 중에서 유일하게 야외음악회 행사를 열고 있는 ACPMP동창회는 현재 7기까지 4백여 명의 회원이 배출돼 매월 건측관련 세미나와 골프모임을 열어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AFB동창회

10주기 기념식 개최

패션산업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崔炳五)는 지난 6월 25일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호텔에서 모교 생활과학대학과 공동으로 10주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생활과학대학은 이날 최고경영자과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동문들에게 공로패, 감사패 등을 증정하며 10주기를 기념했다.

崔炳五회장에게 최고영예상을 수여했으며, 李東洛(1기)·丁光鎭(1기)고문, 이현주(3기)사무총

장, 이두현(3기)재무간사, 모영일(5기)감사, 심현옥(5기)부회장, 박흥식(7기)동기회장, 조병근(8기)등산회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또 李珍淳(1기)고문, 백종수(7기)골프회장, 이영규(7기)수석부회장, 양호석(8기)·문정욱(9기)동기회장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ALP동창회

金勝濟회장 재선임

법대 최고지도자과정동창회(회장 金勝濟)는 지난 6월 2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 개선에서 金勝濟회장(이스타코 대표)을 재선출했으며 사무총장에 코오롱글로벌 朴東文(조선공학77-81·11기)대표, 감사에 품림명품물산 송춘영(5기)대표와 효림회계법인 전만준(철학92-97·7기)이사를 선임했다. (南)

영어영문학과동창회

콜린 파월 초청 강연

영어영문학과동창회(회장 柳津)는 지난 최근 서울 소공동 조선히텔 그랜드볼룸에서 콜린 파월 前 美국무장관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파월 前장관 초청은 柳 津회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성사됐다. 柳회장은 파월 前장관의 자서전을 한국어로 번역해 출간한 바 있다.

동창회는 최근 인터넷 카페(cafe.daum.net/snuengl)를 개설하고 멘토링 사업 전개, 등산 모임 정례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耳順테니스회

全兢烈·洪性穆동문 우승

60세 이상 테니스 동호인으로 구성된 耳順테니스회(회장 韓榮成)는 지난 6월 5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테니스코트에서 제61회 춘계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최근 회장에 선출된 한국기술사회 韓榮成(전문기상59-63)회장을 비롯해 20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전체 회원 수는 66명이다.

경기결과는 다음과 같다.

▲八旬조 : 우승 全兢烈(토목공학45-48)·洪性穆(건축54-58)동문, 2위 亾承顯(법학68-72)·李文炯(약학47-50)동문 ▲耳順A조

농화학과동창회

2백여 동문 가족 모교 방문

농화학·응용생명화학전공동창회(회장 趙結熙)는 지난 5월 29일 모교 관악캠퍼스 농생명과학대학에서 제42차 정기총회 및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기총회, 실림실

투어, 친교시간, 경품추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趙結熙회장은 “지난 1년 동안 1천6백여 동문들의 동창회 발전에 대한 갈망과 뜨거운 열정을 느꼈다”며 “이러한 에너지를 잘 결집

재단 19층 대화실에서 제1회 여기자 초청 모임을 개최했다.

매일경제신문 蔡耕玉뉴스속보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본회 洪性大부회장, 관악언론인회 文昌克회장, 金亨珉간사장, 金鎮國부간사장, 본보 朴聖姬·許文明 논설위원을 비롯해 각 언론사의 여자 2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다른 언론사 선배를 출입처에서 만나도 동문인 줄 잘 모르고 지냈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 알게 돼 기쁘다”며, 여자 모임을 정례화하자고 이구동성

시켜나간다면 우리 동창회의 발전은 지속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임원 개선을 통해 차기 회장으로 그레이폴코리아 李廷浩(농화학71-76)대표, 차기 수석부회장에 태창인재 韓勝國(농화학72-76)대표를 선출했으며 이어 李用益(농화학69-76)전임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후배 재학생 3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노천강당으로 자리를 옮긴 2백

여 명의 동문 가족들은 점심식사 후 노래자랑과 게임 등을 즐겼다.

행사를 위해 金仁基(농화학59-63)·李森徽(농화학66-70)·李均喜(농화학66-70)·河炫八(농화학68-75)·李仁永(농화학69-73)·趙結熙(농화학70-77)·李廷浩·崔洸舜(농화학71-79)·朴基銖(농화학71-78)·羅鍾民(농 화학 72-79)·韓範錫(농화학73-77)동문 등이 금품을 협찬했다.



으로 말했다.

관악언론인회는 앞으로 여자 모임을 매년 2회 정도 개최하기로 의결하고, 오는 11월 3일에 송년회 겸해 두 번째 모임을 갖기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회의를 마친 후 자리를 옮겨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며 붉은 악마가 되어 열띤 응원을 펼쳤다.

ACAD동창회

발전기금 6천만원 출연

국가정책과정동창회(회장 李廷益)는 지난 5월 29일 모교 관악캠퍼스 행정대학원 신관에서 66기, 67기 동기회 주관으로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행정대학원 신관 건립 후 처음 열린 이날 행사는 건물 투어, 기념식, 축하공연, 만찬, 경품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 모교 행정대학원 崔鍾元원장은 발전기금 3천만원을 각각 출연한 李廷益(34기)회장과 張永蘭(국악75-80·63기)여성분과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



張永蘭·崔鍾元·李廷益동문

며 이에 대한 보답으로 행대원 B109실과 B106실을 두 동문의 이름으로 명명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李廷益회장이 LCD TV 42인치 1대를 협찬한 것을 비롯해 朴台東(6기)·신희식(54기)·成始喆(55기)·최종구(62기)·김용기(64기)·白晉昊(69기)

동문 등이 노트북, 제주도 왕복항공권, 백화점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협찬했다.

HPM동창회

노인요양보험 세미나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동창회(회장 李相昊)는 지난 6월 15일 서울 장충동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노인요양보험의 일년과 병원의 갈 길’이란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보건복지부 劉永學(행대원79입)차관이 주제강연을 맡아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南)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법대동창회 金慶漢회장
(KH법률연구소 변호사)



지난 5월 법과대학동창회 신임 회장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KH법률연구소 金慶漢(법학62-66)변호사가 선출됐다. 같은 시기에 법대 鄭宗燮학장이 취임해 모교와의 협조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전망이다. 金회장은 취임사에서 “‘이미자 뒤에 노래하는 격’이라 걱정이 앞서지만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의 발자취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 장관 퇴임 후 근황은.

“몇 달을 쉬다가 금년 초에 여의도에 작은 사무실을 열고 몇몇 기업의 법률고문 일을 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운동과 독서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포럼 활동 등을 하고 있어요.”

호인 활동도 더욱 격려할 생각이구요. 특히 법대 출신들 중에는 예술분야에 전문가 이상의 실력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 분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드려야죠. 지난 6월 18일에는 동문 문인들이 모여 ‘법대 문우회’를 창립한 바 있고 미술과 음악에 조예가 깊은 분들이 미술전시회와 음악회 개최를 계획 중입니다.”

“문학 등 예술동호회 적극 지원”

— 동창회 소개를.

“1957년에 창립돼 1만9천여 회원이 있어요. 출범 당시부터 장학 사업을 적극 추진해 그동안 3천6백여 명의 법대 재학생에게 20여 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죠. 이와 함께 모교와 동문들이 힘을 모아 菊山법학도서관을 건립한 것을 비롯해 근대 법학교육 백주년 기념관, 瑞岩법학관 건립, 서울법대 백년사 발간 등 모교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매년 총회, 신년회, 골프·등산모임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법대 발전기금 모금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모교와 유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인지.

“무엇보다 스킨십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자주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내외 지역별 동창회도 방문하고 동

— 마지막으로 동문들에게.

“서울법대를 나왔다는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져도 좋지만, 한편으로 이에 따르는 사회적 기대와 책무 또한 매우 큼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나라와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항시 고민하고, 나아가 여러 방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법대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944년 경북 안동 출생인 金회장은 경북고를 졸업해 모교에 입학했다. 1970년 1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0년 서울지검 공안1부장을 거쳐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법무부 차관, 서울고검 검사장을 지냈으며 2008년 2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장관 재임시절 전국 16개 지자체와 협력해 법질서 바로 세우기 범국민 캠페인을 시작하는 등 ‘미스터 법질서’란 별명이 붙기도 했다.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자연대동창회 金胄弼회장
(동국대 석좌교수)

“우선 올해 연말에 주관 학과를 정해 송년회를 열고 자랑스러운 자연대인상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또 자연대에 여자 동문이 많은 편인데, 여성회 결성을 독려하려고요. 지난번 총회 때 보니 여자 동문들의 참석이 저조하더라고요. 현재 회원 현황을 파악 중인데 올해 말이면 명부도 나올 것으로 봅니다.”

— 동문들에게 한 말씀을.

“총회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서울대 덕분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았냐, 이제 보답해야 되지 않느냐’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모교를 도울 생각입니다. 동문들도 동참해주길 바랍니다.”

자연과학대학동창회가 지난 5월 재건총회를 열고 9년 만에 새 회장으로 동국대 金胄弼(동물63-67)석좌교수를 선출했다. 金회장은 국내 1호 거미박사로 유명하다. 오랫동안 동물학과동창회장으로 봉사하며 동문 사회에서도 덕망이 높다. 지난 6월 21일 경기도 남양주시 운길산에 위치한 ‘주필거미박물관’에서 만나 동창회

“자연대인상 제정·여성회도 결성”

운영계획을 들어봤다.

— 동창회 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 자연대동창회가 이렇게 오랫동안 침체돼 있는 줄은 몰랐어요. 모교 자연대 李鍾燮학장의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알게 됐죠. 재건을 위해 힘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서게 된 거죠. 지난 총회 때 가족을 포함해 2백명이 넘게 왔더라고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 침체 원인은.

“문리대, 자연대 동문들의 특성이 자유분방하고 어디에 매여있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또 각 학과동창회 임원들이 돌아가며 회장을 맡아야 했는데 어느 한 과에서 억지로 연임을 하다보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사업하는 분이 적은 것도 활성화되지 못한 요인 같고요.”

— 추진 사업이라면.

1943년 황해도 연백 출신인 金회장은 배재고를 나와 모교에 입학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학원 강사로 활동해 종로 학원가에서 생물학 스타강사로 이름을 날렸다. 1976년 YBM으로부터 EMI(대영학원)를 인수해 1986년까지 원장으로 활동하며 큰돈을 벌었다. 1985년 동국대에서 환경 지표 생물인 거미를 주제로 박사학위 취득 후 대학 강의를 시작했다. 1991년 동국대 전임교수로 임명돼 퇴임 후에도 석좌교수로 매주 두 차례 강의를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남양주시 운길산에 66만㎡ 규모의 거미박물관을 설립해 국내 최대 시설 자연사박물관을 만들어 가고 있다. 공간 마련과 광물, 동물, 거미, 종유석, 유물, 수석 등 수집에 4백억원 정도가 소요됐다. 이를 지난해 동국대에 모두 기부했다. 한국동물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표준생물’, ‘거미학연구’ 등을 저술했다. 〈南〉

6-2 전국동시 지방선거
서울대인 총 83명 당선

광역단체장 9명·교육감 4명·기초단체장 38명
광역의원 12명·기초의원 19명·교육위원 1명

사진은 입학년도순으로 게재했으며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위원 사진은 지면관계로 실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金完柱전북도지사



李始鍾충북도지사



姜雲太광주시장



金範鎰대구시장



金文洙경기도지사



許南植부산시장



禹瑾敏제주도지사



宋永吉인천시장



吳世勳서울시장

지난 6월 2일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총 83명의 동문이 당선됐다.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서울시장에 吳世勳(SGS 7기 한나라당)現시장, 부산시장에 許南植(행대원78졸 한나라당)現시장, 대구시장에 金範鎰(경영69-73 한나라당)現시장, 인천시장에 宋永吉(ACAD 56기 민주당)국회의원, 광주시장에 姜雲太(외교 68-72 민주당)국회의원, 경기도지사 金文洙(경영70-94 한나라당)現도지사, 충북도지사 李始鍾(정치67-71 민주당)국회의원, 전북도지사 金完柱(정치66-70 민주당)現도지사, 제주도지사 禹瑾敏(AMP 43기 무소속)前도지사 등 동문 9명이 당선됐다.

올해 처음 실시된 16개 시·도교육감 선거

에서는 서울시교육감에 郭魯炫(법학72-76)방송통신대 교수, 인천시교육감에 羅根炯(수학교육58-62)現교육감, 경기도교육감에 金相坤(경영69-76)現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에 張萬彩(화학80졸)前순천대 총장 등 4명이 승자가 됐다.

한편 82명의 시·도교육위원 당선자 중 李壽榮(체육교육66-70)前인천시교육청 교육국장이 인천시교육위원으로 뽑혔다.

지역 살림을 꾸려나갈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2백28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 가운데 38명이 서울대인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의회 의원(비례대표 포함) 7백61명 가운데 동문 12명이 당선됐다. 또 기초의회 의원(비례대표 포함) 2천8백88명 중 19명이 동문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羅根炯인천교육감



金相坤경기교육감



郭魯炫서울교육감



張萬彩전남교육감

선 거 구		성 명	출 신 대 학	전 직	정당
광역단체장	서울특별시	吳世勳	SGS 7기	서울시장	한
	부산광역시	許南植	행대원78졸	부산시장	한
	대구광역시	金範鎰	경영69-73	대구시장	한
	인천광역시	宋永吉	ACAD 56기	국회의원	민
	광주광역시	姜雲太	외교68-72	국회의원	민
	경기도	金文洙	경영70-94	경기도지사	한
	충청북도	李始鍾	정치67-71	국회의원	민
	전라북도	金完柱	정치66-70	전북도지사	민
기초단체장	제주도	禹瑾敏	AMP 43기	前제주도지사	무
	서울	朴炯常	AIC 15기	변호사	민
		金基同	지리65-69	前공무원교육원장	민
		柳德烈	SGS 7기	前동대문구청장	민
		文忠實	행대원82-84	前마포구 부구청장	민
		柳鍾珒	철학78-85	前국회도서관장	민
		陳翼喆	행대원81-83	前상수도사업본부장	한
		申燕姬	ACAD 59기	前여성정책보좌관	한
		李海植	SGS 23기	강동구청장	민
	부산	魚允泰	AMP 55기	영도구청장	한
		吳奎錫	SGS 3기	前기장군수	무
	대구	郭大勳	행대원78-82	前달서구청장	한
	인천	朴祐燮	미생물72-94	前남구청장	민
	경기	廉泰英	농화학80-84	수원르네상스포럼 대표	민
		梁基大	지리교육81-88	민주당대표 언론특보	민
		崔星	AIC 11기	前국회의원	민
		余仁國	행대원88-93	과천시시장	한
		金成濟	행대원90-93	前국토해양부 서기관	민
		郭相旭	AIP 30기	현대영아스쿨 대표	민
		金允植	SGS 4기	시흥시장	민
		金春錫	사회69-73	전자거래진흥원장	한
		韓凡惠	동양사학72-76	前행정자치부 제2차관	민
		李駿遠	행대원87-89	공주시시장	국
	전북	宋河珍	행대원81졸	전주시시장	민
		文東信	ACAD 55기	군산시시장	민
		李建植	ACAD 29기	김제시장	무
		林呈燁	SPARC 15기	완주군수	민
	전남	丁鍾得	상학59-65	목포시장	민
		盧官圭	AIP 20기	순천시시장	무
		林成勳	대학원82-87	비텍시스템 사장	민
		金鍾植	행대원83졸	완도군수	민

	선 거 구		성 명	출 신 대 학	전 직	정당
기 초 단체장	전 남	진도군	李 東 鎭	법학64 - 72	전남개발공사 사장	민
		무안군	徐 參 錫	ACAD 66기	무안군수	민
	경 북	포항시	朴 承 浩	ACAD 46기	포항시장	한
		구미시	南 洧 鎭	종교72 - 76	구미시장	한
	경 남	상주시	成 百 營	AMP 64기	前대한주택공사 감사	미
		진주시	李 昌 熙	행대원82 - 87	前경남 정무부지사	한
		고성군	李 鶴 烈	금속공학74 - 78	고성군수	한
		남해군	鄭 炫 台	국어교육81 - 90	남해군수	무
광 역 의 원	서 울	(서초구)	金 勇 錫	동양사학86 - 92	前경향신문 전략경영팀장	한
		(비례대표)	張 貞 淑	성악72 - 76	민주평화국민회의 공동대표	민
	부 산	(중 구)	諸 宗 模	AMP 18기	부산시의회 의원	한
		(해운대구)	李 東 潤	외교85 - 90	부산시의회 의원	한
	대 구	(달서구)	金 元 久	경영78 - 82	공인회계사	한
	울 산	(남 구)	李 熙 碩	조소84 - 89	前한국예총 울산시연합회장	한
	경 기	(부천시)	鄭 詳 煒	SPARC 6기	새부천로타리클럽 회장	민
		(평택시)	全 鎭 奎	AIP 41기	경기도의회 의원	한
		(고양시)	崔 在 延	건축95 - 00	공간기획 폴 대표	진
		(군포시)	崔 京 信	지리84 - 88	군포문화예술회관장	민
	충 남	(태안군)	康 哲 珉	AMPP 1기	충남도의회 의원	한
	전 북	(전주시)	金 成 柱	국사82 - 89	전북도의회 의원	민
기 초 의 원	서 울	종로구	朴 魯 燮	AMPFRI 5기	바르게살기 총로구協 이사	민
		광진구	崔 今 孫	AMPFRI 2기	거보주회관 대표	한
		성북구	朴 順 基	HPM 3기	성북구의회 의원	민
		서대문구	徐 貞 順	소비자아동88 - 92	서대문구의회 의원	민
		마포구	朴 暎 吉	약학61 - 65	마포구의회 의원	한
		금천구	鄭 曷 梓	SGS 5기	前금천구의회 의원	한
		동작구	洪 云 哲	SGS 1기	前동작구의회 의원	한
			朴 源 圭	SGS 1기	前동작구의회 의원	민
		송파구	朴 宰 賢	임산가공82 - 88	참여당 송파 부위원장	참
		경 기	성남시	李 叔 庭	소비자아동94 - 98	前어린이집 원장
	부천시		尹 炳 國	사회복지82 - 89	부천시의회 의원	민
			朴 魯 高	SGS 5기	부천시의회 의원	한
	과천시		安 重 現	지리교육77 - 84	과천시의회 의원	한
			徐 炯 源	경제87 - 92	과천시의회 의원	무
			黃 淳 植	자연과학96 - 01	과천시의회 의원	진
	고양시(비례)		金 潤 淑	간호87 - 91	고양환경운동연합 편집장	참
	용인시(비례)		金 鮮 熹	기약81 - 85	여성유권자연맹 용인 회장	한
	충 북	청주시	尹 宋 鉉	사회81 - 89	손큰해매만두 대표	민
	경 남	하동군	李 烘 坤	농업토목85 - 92	하동군의회 의원	노

▲AMP(경영대 최고경영자과정), AIP(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 ACAD(행대원 국가정책과정), SGS(환대원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 HPM(보대원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 AMPP(자연대 해양정책최고과정), AIC(행대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AMPFRI(보대원 식품외식산업 보건 최고경영자과정), SPARC(자연대 과학기술혁신최고전략과정)

▲한나라당(한)·민주당(민)·민주노동당(노)·진보신당(진)·국민중심연합(국)·국민참여당(참)·미래연합(미)·무소속(무)

선 거 구		성 명	출 신 대 학	전 직
교육감	서울특별시	郭魯炫	법학72-76	방송통신대 교수
	인천광역시	羅根炯	수학교육58-62	인천시 교육감
	경기도	金相坤	경영69-76	경기도 교육감
	전라남도	張萬彩	화학80졸	前순천대 총장
교육위원	인천광역시	李壽榮	체육교육66-70	前인천시교육청 교육국장

인터넷으로 일반인에 명품강의 공개

지난 5월 19일 모교는 평생교육원 개원과 함께 우수한 교육 콘텐츠인 ‘서울대 강의’를 전 세계 어디서나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 지식나눔(SNUi)서비스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모교 李長茂총장의 사회환원에 대한 철학이 잘 담겨있는 이 교육사업의 선두에는 평생교육원 梁豪煥(역사교육76-80)초대 원장이 있다. 모교의 수준 높은 교양강의를 사회에 환원하고 지식을 봉사하는 이번 사업은 프로그램 시작 전부터 해외에 있는 동문들에게도 문의가 쇄도할 정도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6월 17일,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정규 프로그램 준비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梁원장을 만나 그동안의 활동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들어봤다.

강의 이수 후 수료증도 발급

1992년 모교에 부임해 각 기관의 부서장을 역임하면서 모교 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梁원장은 개인한 소감을 묻자 잠시 생각을 더듬더니 화답했다.

“준비기간만 2년이 넘었죠. 총장님께서 직접 ‘지식나눔’이라는 교육사업의 철학을 주셔서 당시 교수학습개발센터 소장인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신설기관이다보니 관련법규도 없고 제도나 필요한 사항들이 전혀 준비돼있지 않아서 시작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왜 서울대에 평생교육원이 있어야 하는지 학내 교수님들과 의견을 모으는 절차과정도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수와 직원들이 수백 번의 회의와 작업을 거쳐 합의점을 찾고 동문들과 여러 기관의 후원을 통해 탄생하게 된 평생교육원. 그리고 평생교육원의 온라인 프로그램인 원격강의 SNUi 서비스는 지난

5월부터 7월 12일까지 파일럿(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현재 파일럿 프로그램은 인문대에서 주관하는 ‘인문학의 세계’, 각 연구소에서 개발한 ‘제3기 인생 온라인대학’ 등이 있습니다. 시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수강생들 대부분의 출석률과 참여율이 높아서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9월부터 시작되는 오프라인 강의를 위해 관악캠퍼스 내에서도 조망이 훌륭한 롯데국제교육관에 강의실을 확보했다.

“현재 2개의 강의실이 확보가 됐는데 한 두 개 정도를 더 물색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평생교육원 사무실이 있는 롯데국제교육관 근처에 마련하려고 합니다. 강의는 모교 명예교수님들이 맡아 고급교양 위주로 1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원의 사업은 강의를 맡게 된 명예교수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 교수들은 정년퇴임 후 여유있는 시간에 사회봉사를 위해 헌신할 수 있기에 열정이 넘친다고 한다. 또 저명한 모교 명예교수들의 명성에 수강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명예교수님들은 보통 한창 때 은퇴하셨기 때문에 선뜻 응해주셨어요. 서울대가 사회에 봉사하는 기회로 마련한 사업이니 좋은 뜻이라면서 동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수강생들은 프로그램별로 수강을 도와주는 튜터들의 도움을 받아 학습을 진행한다. 수강대상은 점차적으로 해외 교포는 물론이고 외국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강료는 지난 파일럿 프로그램의 경우 일괄적으로 한 프로그램당 3만원의 강의료가 책정됐으나 9월에 시작되는 정규학기부터는 차등화된다.

“수강료는 교재비와 운영비를 포함해 5~10만원 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에 수십 만원에서 몇백 만원을 넘는 일부 대학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적은 금액이죠. 수강료뿐만 아니라 교육의 운용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타 대학의 평생교육원과 크게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일반 취미활동으로 하는 꽃꽂이나 운동 프로그램보다 전문 자격을 갖춘 콘텐츠와 고급 교양 위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문들의 참여와 ‘입소문’ 필요

그렇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평생교육원의 강의를 각 단과대와 기관별로 진행 중인 강좌와는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 프로그램이나 강의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돌아왔다.

“학내의 지도자과정은 일반시민이 접근하기에는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기관에서 하는 공개강좌는 한정돼있고 상황에 따라 진행하는 단회성 프로그램이 많고요. 반면에 저희는 강의를 잘 이수했다면 평생교육원장과 기관장의 인증이 들어간 수료증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학내에서 진행됐던 좋은 공개강

좌는 같이 협조하고 또 저희가 함께 지원해가면서 파트너십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梁원장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모두가 좋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동문들의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오프라인인 평생교육원 사업보다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는 게 더 빠르겠다는 李長茂총장님의 의견에 따라 동아일보 방송설립추진위원회 安國正(사학63-70 본보 논설위원)위원장님께서 원격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을 해주셨습니다. 또 모교 경영대 趙東成(경영67-71)교수님, 회계나 사업문제에 도움을 주신 모교 기술지주회사 盧政翼(경영72-76)대표님, 시스템을 지원해준 엔씨소프트(대표 金澤辰 전자공학85-89) 등 셀 수 없이 많은 분과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본회 이사로도 활동하며 동창회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梁원장은 동문들에게 한마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우리 동문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잘 하고 계십니다. 많은 동문들이 직접 참여해주시고 주변분들에게 ‘이거 참 좋더라’하고 입소문을 내주시면 이번 사업 홍보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교는 평생교육원이 고령화시대로 가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과 국가산업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의 오프라인 강의는 9월 초에, 온라인 SNUi 강의는 9월 중순쯤에 가동할 예정이다. 온라인 강의는 매달 접수를 받아 상시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snui.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梁원장은 모교 졸업 후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92년 모교 사범대 역사교육과 교수로 부임해 사범대 교무부장장, 모교 교무부처장, 교수학습개발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다. 〈榮〉

최근 모교는 李長茂총장의 성과를 기록한 'VISION&CHANGE 2006~2010' 백서를 발간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여기에 소개한다.

‘VISION & CHANGE 2006~2010’ 백서 발간

오는 7월 19일 임기를 마치는 모교 李長茂총장이 지난 4년간 모교의 놀라운 발전을 이뤄냈다.

‘VISION 2025’ 선포를 시작으로 핵심 과제들을 역동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9년 영국 더 타임즈 세계대학평가에서 47위(2006년 63위)에 올랐다. SCI 논문 수에서는 20위(2006년 32위), 글로벌 기업 CEO 배출 5위(2007년 32위), 조선일보-QS의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는 동경대 다음인 6위에 랭크됐다. 발전기금은 당초 목표인 3천억원을 넘어 3천5백억원을 달성했다.

세계적 학문 수월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큰 성과를 거뒀다. 노벨상 수상자 등 해외 석학 초빙 및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문 융복합 기반을 한층 확대했다. 교수 임용체제를 혁신하고 연구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선발에도 적극 나섰다. 연구비 수주액은 2006년 3천3백20억원에서 2010년 4천6백23억원으로 증가했다.

국제화를 위한 대대적인 노력으로 2006년 47명의 외국인교수가 2010년 2백11명으로 늘어났다. 해외 학술교류협정 체결 대학도 4백3개에서 8백13개로 두 배 이상 확대됐으며 외국인 학생도 2천명 수준에서 3천7백60명으로 증가했다.

그동안 차갑고 근엄했던 모교 이미지도 친근한 대학으로 바뀌었다. 기회균형선발, 지역할당제 등 국립대로서의 책무를 확대해 가는 동시에 지식 나눔 봉사활동, 평생교육원 설립, 프로네시스 나눔실천단 활동 등을 통해 시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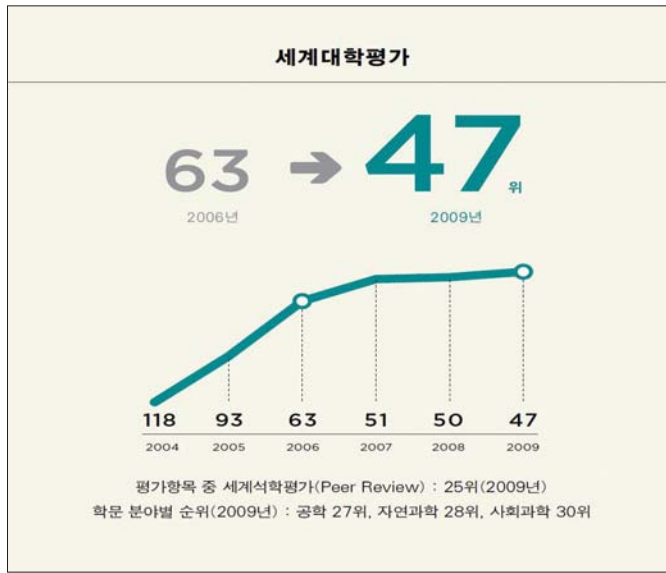
창조적 교육과 연구 정착

지난 2008년 李長茂총장과 예일대 레빈 총장은 대담을 통해 세계 초일류 대학의 주요 필요조건 중의 하나로 세계적인 석학 초빙을 꼽았다. 2008년 노벨상 수상자급 석학 20여 명 초빙 계획을 마련해 우선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폴크루젠 교수, 필즈메달 수상자인 히로나가 헤이스케 교수를 2008년 각각 지구환경과학부, 수리과학부 초빙석좌교수로 임용했다. 또 미국 뉴욕 주립대 사학과 金成福(사학52-56)석좌교수를 자유전공학부에 초빙했다.

세계적인 석학 육성을 위해 Brain Gain(우수 인재 및 학자 유치), Brain Nurture(우수 학자 지원 및 육성, 석좌교수 및 중견석좌교수, 학술연구상 제정), Brain Fusion(다학제적 융복합 연구 장려) 등 이른바 ‘3B 프로젝트’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물리천문학부 任志淳(물리70-74)교수를 모교 첫 석좌교수로 임용했으며, 올해 2월 중견석좌교수에 화학생물공학부 玄澤煥(화학83-87)교수, 생명과학부 金빛내리(미생물88-92)교수를 임용했다.

2009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및 융합과 학기대대학원 개원과 자유전공학부 설치,



李長茂총장, 세계 초일류대학 향한 초석을 다지다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3개 학과, 4개 전공), 전문대학원 전환 및 신설(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등을 통해 융·복합 교육과 학문 연구의 기틀을 다졌다.

교수 승진과 정년보장 심사에서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법을 채택했고, 외부인사도 참여가 가능한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교육 연구의 수준 향상과 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했다.

잠재성을 겸비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우수 인재 선발과 기초교양교육 강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다면적이고 종합적 평가를 위

램, 세계적 수준의 외국인 교수 유치 및 지원 프로젝트, 국제화관 건립 등 주요 프로그램을 수립해 국제화의 방향을 설정했다.

세계 속의 서울대로 성큼

2008년 9월 런던시티대 사회과학대학장을 지낸 사회학과 앤서니 우드워스 교수 등 55명의 외국인 교수를 대거 채용하면서 우수 외국인 교수 1백명 채용 비전의 첫 발을 내딛었다. 2006년, 2007년 각각 47명에 그친 외국인 교수는 2009년 1백42명으로 늘어나고, 2010년 4월 시간강사를 포함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2009년 13.9%로 2006년 5.8%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총 9천4백92개 개설강좌 중 1천3백21개에 이른다.

李長茂총장은 2006년 취임사에서 ‘나누고, 베풀고, 희생할 줄 아는 리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 지도자, 실천적 지혜인 프로네시스(phronesis)를 지닌 리더 양성’을 강조했다. 봉사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따뜻한 가슴을 지닌, 실천적 지혜를 함양하는 리더 육성은 서울대학교의 주요한 ‘사회적 책무’로 자리잡았다.

2006년 11월 학생들로 구성된 ‘프로네시스 나눔실천단’ 발족이 노블레스 오블리제



2008년 국제하계강좌



새싹멘토링 봉사단 발대식

해 도입한 입학사정관제는 2011학년도에 정원내 전형인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확대됐고, 합격자 배출 고교수가 2006년 8백46개에서 2010년 1천13개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학 및 통일평화분야 학문 진흥을 통해 ‘아시아 지식허브’ 서울대학교로 거듭났다. 2006년 통일평화연구소를 개소한데 이어 지난해 글로벌 아시아연구소 설립했고, 2007년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국제한국학센터 설립했으며 2009년에는 옥스퍼드대에 규장각 장서 2백권을 기증하기도 했다.

선진 연구시스템도 구축했다. HK사업 및 2단계 BK21사업 등으로 연구역량이 크게 성장했으며, 기술이전에 따른 수입료 증대와 기술지주회사 설립, 서울대 상표관리 강화로 연구재정을 확대했다. 2006년 3천3백20억원이던 연구비가 2009년 4천6백23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모교의 국제적 위상이 매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교수와 학생이 많이 늘어나고, 해외 유명 대학과의 실질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2007년 국제하계강좌,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신문명 프로젝트, 외국인 유학생 유치, 외국인 우수학생 장학 프로그램

2백1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서울대 교수의 10% 수준이며, 직급 또한 전임교수는 물론 초빙석좌교수, WCU초빙석좌, BK교수, 겸임교수 등으로 다양화됐다.

실크로드 장학금, Glo-Harmony Scholarship, 4개 대학 한국어 지원, 외국인 우수 대학원생 지원 프로그램(GSFS Program) 등 다양한 장학프로그램으로 우수한 외국인 학생 유치의 기반을 다졌다. 2010년부터는 국내 대학 중에서는 처음으로 9월 2학기 외국인 학부생 입학이 가능해진다. 외국인 학생은 2006년 2천90명에서 2009년 3천7백6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서울대는 2010년 14개 세계 유수대학과의 공동학위, 복수학위를 체결해 교류하고 있으며, 미국 듀크대, 프랑스 파리11대학, 중국 북경대 등 13개 대학과 복수학위를, 자연대가 독일 마인츠요하네스구텐베르크대와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모교-동경대, 모교-미시간대, 모교-NCAR(미국 국립기상연구소) 국제 화상 공동강의도 한층 활발하고, 2007년 국제하계학교(ISH)를 열어 세계적 석학을 초빙하고 최고 수준의 강의로 3년여 만에 ‘관악의 아이비리그’로 올라섰다. 외국어 진흥강좌도

의 첫 발이었다. 프로네시스 나눔실천단은 소외지역 교육봉사활동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4개 지역 2천여 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지역사회 의료, 교육, 문화 등 봉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다문화 가정 봉사(Happy Culture Network) 활동 등을 전개했다. 해외봉사에는 10개국에서 2백여 명이 참여했다.

이웃에 봉사하는 대학으로

모교는 ‘1인 1봉사’ 비전을 세우고 사회 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멘토링 등 지식나눔, 소외지역 교육, 해외 해비타트, 의료, 문화 등 봉사활동의 다양화를 통해 ‘재능기부’라는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도 했다. 찾아가는 멘토링, 모교 탐방 멘토링, SNU 멘토링 등은 교육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9년 6천4백여 명의 모교 학생, 교수, 직원들이 봉사에 참여했고, 전국적으로 5만1천8백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모교 교수들은 특강을 통한 지식나눔으로 봉사의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나갔다.

모교는 2009년 1월 경제위기 속





양극화 해소를 위해 ‘동반자사회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교육과 연구의 본분 이외에 국립대로서 봉사라는 사회적 책무에 주목했다. SNU 멘토링 및 새싹멘토링 등 지식나눔 봉사와 시민교양강좌, 제3기 인생대학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강좌 그리고 취업역량강화과정, 경영능력향상과정 등의 고품격의 강좌를 마련했다. 동반자 사회 프로그램은 수준높은 강좌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의 의지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다.

1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모교는 올해 4월 평생교육원을 설립해 한층 체계적인 지식나눔의 사회기여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SNUi 온라인, SNU 개방강좌, SNU 기획강좌, 경력개발 전문과정, 동반자 사회를 위한 사회적 협력과정 등 5개 교



제3회 세계대학총장포럼

육과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모교는 세계 초일류대학의 필요조건인 선진적인 교육 기반 마련과 연구 여건 개선,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악캠퍼스, 연건캠퍼스 등을 새롭게 디자인했다. 노후한 시설을 리모델링했고, 부족한 공간을 증축했으며, 국제관 등 새로운 교육·연구 기반시설 구축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해 모교가 캠퍼스를 대대적으로 디자인하고 있다.

45건의 교육·연구시설 세워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을 통해 45건의 새 교육·연구시설이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했거나 조만간 새로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롯데국제교육관, 대림국제관 등 국제화 추진 시설과 함께 SPC 농생명과학 기초과학연구동, 종합교육연구단지, 기숙사 등 교육과 연구, 복지 등 대학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인프라를 구축해 캠퍼스의 수준이 크게 성장했다.

세계적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교육 여건 조성과 국제 교류의 확대를 위해서 관악 캠퍼스 밖으로 눈을 돌렸다. 수도권 인근에



국제적 수준의 교육, 연구가 이뤄질 지식허브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캠퍼스 조성을 추진해오고 있다. 국제캠퍼스는 개방형 글로벌 교육기구, 글로벌 협동연구·창업단지, 국제협력기구의 연합체를 주요 기능으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국제화 사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모교는 지난 2009년부터 경기도, 시흥시와 강익동, 병원, 연구시설 등을 갖춘 국제캠퍼스 및 글로벌 교육·의료 클러스트 조성을 논의해오

고 있다.

국제적인 규모의 첨단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에 의한 관련 분야의 집적을 위해 강원도 평창에 강원도, 평창군과 함께 2,768,179㎡ 규모로 Green-Bio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빠르면 2011년경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인천 청라지구에 IT와 BT 융합기술 개발을 선도할 국제과학 복합연구단지(BIT Port)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 홍천에는 면역학 연구를 위한 국가인증시험 전문연구기관(GLP) 시설과 생물안전 3등급(BSL3) 시설인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가 들어설 계획이다.

모교는 21세기 세계적 수준의 종합연구 대학으로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며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2007~2025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다. 교수, 직원 등 대학 구성원 70여 명이 2006년 9월부터 6개월 가량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세계 초일류대학 도약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2010년 10개 학문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연구수준에 도달하고, 2015년에는 30개 학문분야에서, 2025년에는 50개 학문분야에서 연구와 교육수준을 세계 10위권 내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모교는 개방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스스로의 체질 개선과 내부혁신 계기 마련을 위한 필요성으로 국립대학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초일류대학 도약의 필요조건인 자율권 확보와 재정확충, 교육·연구 역량 강화 등

을 기대할 수 있다. 국립대 법인화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대학의 경쟁력 제고에 의미 깊은 전환점이 될 것이다.

2025년 세계 10위권 진입

특히 모교는 법인화 이후에도 ‘국립서울대학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초학문 및 보호학문 육성, 등록금 인상 최소화, 소외계층 배려 등을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고 성과를 거뒀다.

2008년 자율화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법인화 대책 기능이 추가되고 법인화 추진이 본격화됐다. 10월 법인화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1년 동안 설문조사와 공청회, 단과대학 설명회 등 지속적인 의견수렴, 검토를 거쳐 2009년 9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되고,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10년 6월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향후 모교는 미래사회 인재육성, 국제화 체제 강화, 중점분야의 세계적 연구수월성 확보, 첨단 및 융합분야 육성, 한국학 진흥 및 세계화, 글로벌 리더십 캠퍼스 조성, 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운영체제 혁신, 장학·복지제도 개선, 대학 재정의 획기적 확충, 교육·연구 윤리 강화, 사회 속의 대학구현을 장기발전계획 중점과제로 설정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발전기금 3천5백억원 목표 초과 달성

“이번 캠페인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

모교 발전기금은 지난 2006년 李長茂 총장 취임 이후,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모금캠페인 ‘VISION 2025’를 펼쳐왔다.

2010년 7월까지 3천억원 모금을 목표로 진행 중인 모금캠페인은 6월 현재 총 3천5백14억원(약정 기준)의 기금을 모아 1개월여를 앞두고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단순히 모금 목표액만 달성한 것이 아니라 모금의 질적 향상도 이뤄졌다. 캠페인 실시 이전인 2002년에서 2005년 한 해 평균 약 4백건이었던 동문 기부 참여가 캠페인 기간인 2006년에서 2009년 약 1천3백여 건으로 증가했고, 비동문의 약정액은 64억3천만원에서 5백41억원으로

무려 8.4배가 증가했다.

과거 대학의 모금은 법인 기업체의 거액 기부에 주로 의존했지만 캠페인이 시작된 2006년 이후에는 개인 기부의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2005년 개인 약정액이 86억원에서 2009년 3백65억4천만원으로 4.2배 증가했다.

발전기금은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현물, 遺贈 등 다양한 기부 방식을 개발하면서 기부자의 수월한 기부를 위해 개인에게 맞춤형 기부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담 펀드레이저, 세무사, 고문변호사 등 전문인단을 구성해 기부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및 법률문제 등 기부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부 컨설팅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李長茂총장은 기부컨설팅 시스템뿐만 아니라 쉽지 않은 기부를 결정한 기부자에게 보다 확실한 예우를 제공하고 기부자의 보람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부자에게 맞춤형 예우 프로그램을 새로 정비했다.

발전기금은 학부모 모금캠페인으로 약 4억5천만원, 교수와 교직원, 학생 모금캠페인으로서는 약 60억원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유력인사 8백여 명을 초청한 ‘2008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대, 감사와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해 행사 당일에만 1백10억원의 발전기금을 유치하기도 했다.

지난 6월 25일 발전기금 감사의 밤에서 발전위원회 孫京植공동위원장은 “이번 모금캠페인의 성공은 달에 인류를 보내는 프로젝트에서 1단계 로켓 추진체 개발에 성공한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 더 많은 과제가 남아있음을 잊지 말고 더욱더 가열찬 분발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치학과·외교학과 통합 ... 학부생 74명 선발

모교 소식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와 외교학과가 51년만에 통합해 출범했다.

지난 6월 3일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李長茂총장을 비롯해 李洪九 前국무총리, 金炯昨 前국회의장, 崔時仲방송통신위원장, 본회 李炯均부회장 등 동문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외교학부 통합출범식이 개최됐다.

1959년 정치학과에서 외교학과가 독립을 하면서 독자적인 학문

을 추구해 왔으나 학문간 융합을 지향하는 최근 추세에 따라 다시 학부로 통합하게 됐다.

통합논의 과정에서 정치외교학과동창회 洪性穆 前회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앞장섰으며 李長茂총장이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해 두 과의 통합이 성사됐다.

새롭게 출범한 정치외교학부는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74명을 학부생으로 선발한다. 학부 승격에 따라 20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1학년 재학생들 중 사회과학 계열 학생 일부가 정치외교학부를 선택해 공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제1회 SNU 멘토 수료식

전국 중·고교생에 온라인 생활지도

모교(총장 李長茂)는 지난 6월 17일 관악캠퍼스 롯데국제교육관에서 학생처(처장 張在盛)와 대학생활문화원이 주관하는 ‘SNU 멘토링 제1회 멘토 수료식’ 행사를 가졌다.

SNU 멘토링은 지난해 경제위기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실시한 동반자사회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이번 수료식에서는 1년 이상 꾸준히 프로그램에 참가한 60명의 재학생들이 李長茂 총장에게 직접 수료증을 받았다.

SNU 멘토링 프로그램은 국내



발전위원회 감사의 밤 기금 목표액 달성 자축

모교 발전기금은 지난 6월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

에서 모금캠페인 감사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모금캠페인 ‘VISION 2025’의 목표금액인 3천억원 달성을 축하하고 모교 발전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마련됐다.

발전기금 南益鉉상임이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朱鍾南기획처장이 모교 추진사업을 보고했으며, 차근철발전기획단장이 모금캠페인 현황을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의 업적과 성과를 담은 ‘VISION&CHANGE 2006~2010’

최초로 인터넷 전용 프로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멘토링으로써 전국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한 모교 재학생들은 중·고교생과 연결돼 생활상담, 학습 및 진로에 대한 지도 등을 해준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에는 재학생 1천53명이 멘토로 봉사하고 있으며 현재 5백64개의 기관과 학교로부터 1천4백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백서를 발표했다.

모교 李長茂총장은 인사말에서 “모교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양적인 성장을 이룬 것은 林光洙 회장님을 위시한 동문들과 발전위원 여러분들의 후원 덕분”이라며 “동문들의 출연건수가 2년간 4배 이상 증가하고,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후원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만찬에서 “李長茂총장은 재임 기간동안 모교를 크게 발전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훌륭한 업적을 이룬 총장님과 함께 하신 발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건배를 제의했다.

이날 감사의 밤 행사에는 발전위원회 명예위원장인 본회 林光洙 회장, 모교 李長茂총장을 비롯해 具平會·鄭哲圭·孫一根·洪性大고문, 孫京植·尹鍾龍공동위원장, 安國正·洪禮杓집행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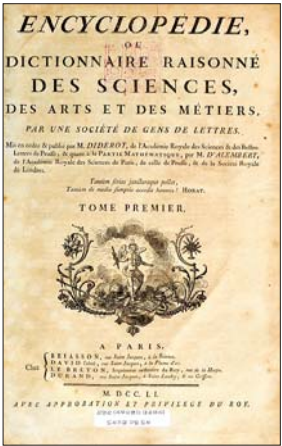
佛백과전서 원본 전시 IFP 김양곤씨 1억원 출연

모교 중앙도서관(관장 金鍾瑞)은 18세기 프랑스 계몽사상가인 디드로와 달랑베르 등이 편찬한 ‘백과전서’ 구입을 기념하는 도서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백과전서 구입은 모교 인문대학 ‘미래지도자 인문학과정(IFP)’ 2기 과정을 수료한 김양곤(시우피앤디 대표)씨가 출연한 도서기금 1억원에 의해 이뤄졌다.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 백과전서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모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李永睦(불문83-87)교수와 김양곤 씨가 프랑스를 방문해 서적의 주인인 루시앵 슈댕(치과의사·볼테르 보존협회회장)씨를 직접 만나 설득하고 원본의 진위 여부와 보존상태를 확인했다.

지난 6월 15일 모교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 4층 메인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李永睦교수는 기념 강연을 통해 “서적에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어 귀한 책을 직접 만지고 느끼며 애정을 갖도록 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보인 백과전서는 1772년에 발간된 초판 원본 35권으로 써 당시 출간된 원본 4천3백질 가운데 하나이다. 현실적으로 개인 소장 원본의 소재 파악과 구입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아시아에서는 그동안 일본만이 1질을 갖고 있었다.

백과전서 간행에는 편집자 외에도 루소·볼테르·몽테스키외 등 계몽주의 사상가 수백명의 집필진이 참여했으며 원본 출간 이후 1789년까지 유럽 전역에서 약 4만질의 해적본이 출간돼, 18세기 당시 성경 다음으로 많은 부수가 팔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榮)



李鍾鎭·金信福·鄭哲圭·李長茂·朴杉沃·胡文赫·林玄鎭등문

사회대 신양학술정보관 준공

鄭哲圭이사장 세번째 건물기증

모교는 지난 6월 10일 관악캠퍼스 사회대(16동) 부근에 신축된 신양학술정보관Ⅲ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 건물은 캠퍼스 내에 소규모 도서관 건립이 재학생들의 면학에 효율적이라는 신양문화재단 鄭哲圭이사장의 취지에 따라 鄭이사장이 출연한 30억원으로 완공됐다.

사회대 林玄鎭학장은 환영사에서 “鄭哲圭이사장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업을 일으키고 우리나라 산업에 공을 세운 숭고한 어른”이라며 “이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鄭이사장님처럼 이웃을 돌보고 나누는 것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李長茂총장은 축사에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멋진 자연과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니 아름답다”며 “귀한 뜻을 모아

건물을 건립해주신 鄭哲圭이사장과 가족분들,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신양학술정보관Ⅲ는 연면적 2천 5백6㎡에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주로 세미나실과 다목적 회의실, PC교육실, 행정실, 인터넷 카페 등으로 사용된다.

鄭이사장은 이외에도 공대와 인문대에 신양학술정보관을 건립했으며 지난 10년 동안 모교 발전과 후진 양성을 위한 장학금, 학술·연구기금, 초빙기금 등 1백33억원을 기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교 李長茂총장·金信福부총장을 비롯해 朴杉沃평의원회 의장, 胡文赫교수협의회장, 현대산업개발 李鍾鎭(AIP 28기)부사장 등 각 단과대 학장과 보직교수 관계자 1백여 명이 참석했다.



공과대학

‘자랑스러운 동문상’

공과대학(학장 姜泰晉)은 지난 6월 16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2010년 자랑스러운 공대 동문상’ 수상자로 국내부문에 한국해사기술 申東植(조선항공 51-55)회장·한서대 安東萬(항공공학66-72)교수·STX에너지중공업 李熙範(전자공학67-71)총괄 회장, 해외부문에 미시건 주립대 李在勝(원자력공학59-63)교수를 선정하고 시상했다. <사진>

공대 姜泰晉학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수상자를 비롯해 많은 공대 동문들의 열정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했다”며 “공대가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창조적인 엔지니어들을 많이 배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대는 1993년부터 산업기술 발전에 공헌하거나 뛰어난 학문적 성취 및 사회 봉사로 모교의 명예

를 드높인 동문을 선정해 ‘자랑스러운 공대 동문상’을 수상해오고 있다.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및 모교 발전공로상 수상자 7월 31일까지 후보 추천

서울대인의 영예이자 귀감이 되는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올해로 20 회째를 맞는 이 행사에 각계 동문들께서 적격자를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분 및 단체를 선정해 제3회 ‘서울대학교 발전공로상’을 수여합니다.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모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 또는 단체를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 31일까지 모교 기획처(전화: 880-5082, 팩스: 889-7489)로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업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榮>

재학생의 소리



당당한 사회구성원을 키우는 곳

안녕하세요. 수영을 통해 자연과 함께 하는 서울대학교 수영부 李秀戀주장입니다. 대입 후 수영부와 서울대학교에서 학업을 통해 인생을 배우고 설계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수영부는 창립 이래, 체육교육학과 학생들이 주로 활동했지만 지금은 20여 명 남짓 되는 학생들 중에 수영특기생뿐 아니라 국악과 학생부터 다양한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 많습니다. 또 OB선배들과의 끈끈한 정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역사를 자랑합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공부만 한다는 편견과는 달리 저희 수영부는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모임을 유지합니다.

지난해에는 서울대학교의 이름으로 출전해 메달을 따오기도 했습니다. 제주 한라배 전국수영대회, 회장배 전국수영대회, 전국대학 수영선수권대회 등 각종 대회에 참가해 개인 종목 1위를 석

권해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기도 했습니다.

인원도 다른 학교에 비해 적지만 이 선수들로 두 세 배 규모의 다른 학교를 상대해 메달을 획득하는 수영부는 순수 아마추어 선



수들끼리 모여 여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 타과생도 있고 수영 전공이 아닌 체대생들도 있지만 수영부에 들어와 오랜 노력 끝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모습은 졸업 후에도 잊을 수 없을 보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졸업 후 우리들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수영 선수로 활동하는 이도 있고

체육지도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와 관련된 다른 일을 하는 선배도 많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영부는 단순히 수영 선수를 키우는 곳이 아니라 졸업 후 어떤 분야에 진출하건 당당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

李秀戀(체육교육07입)
수영부 주장

도록 준비하는 단체입니다.

선배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시는 서울대동창회보에 수영부를 알릴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현재 수영부가 점점 더 성장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 중입니다. 학생들이 자치문화활동을 꽃피울 수 있도록 선배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격려, 지원을 보내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공트 릴레이

카프카와의 대화

鄭 泳 文(심리83-91)소설가



어느 날 꿈속에서 나는 어느 공동묘지에 있었고, 그곳은 내가 늘 가보고 싶었던 곳 이었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 한 명인 카프카가 묻혀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나는 카프카의 유령을 만났고, 슬프고, 약간 이상한 그 꿈에서 우리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갔다.

나: 당신을 만나기 위해 당신이 묻혀 있는 이곳 프라하 슈트라스니츠의 유대인 공동묘지까지 먼 길을 왔다. 그리고 오는 길에 당신이 한때 살았고, 그곳에서 많은 단편을 쓴, 중세에 연금술사와 황금 세공사와 성의 일꾼들이 살았던 ‘황금 소로(złata ulicka)’ 22번지에도 잠시 들렸다. 잠시 애

다. 단지 소망 같은 것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유령은 우리가 흔히 유령에 대해 그리는 것처럼 현세의 삶에 관여하는 그러한 유령이 아니라 단지 이곳의 삶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러한 유령이다. 그것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그 가혹한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일 수도 있을 것이다.

카프카: 공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나 역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어떤 식으로 지속되는지, 혹은 종결되는지 알 수 없다.

나: 당신의 소설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 보다는 당신의 작품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에도 가장 크게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인 것 같다. 그것에 대해 당신은 “또 다른 어느 날 짧은 낮잠 후 눈을 떴을 때, 내 생이 아직 확실하지 않을 때, 어머니가 발코니에서 자연스런 목소리로 묻는 소리를 들었네, ‘무엇을 하시나요?’ 한 여인이 정원에서 대답하지, ‘정원에서 간식을 들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사람들이 생을 영위해 나가는 확고함에 놀랐네”라고 어떤 편지에서 표현했다. 그리고 “모든 사물들이 불확실해져버려 실제로 내가 소유했던 것이라고는 이미 손안에 쥐고 있거나 입안에 들어가 있는 것, 혹은 적어도 손이나 입을 향해가는 도중에 있는 것에 불과했다”라고 했다. 당신에게는 현실의 모든 것이 낯설고, 그만큼 고통스럽게 다가왔을 것 같은데.

카프카: 그렇다. 내게는 모든 것이 환영과도 같았다.

나: 아마도 임센이 임종의 침대에서 창밖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자신의 희곡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로 혼동한 것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였을 것이다.

카프카: 현실의 그 무엇도 엄연하지 않다는 사실은 내가 현실을 감당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나: 나 또한 늘 나 자신과 나 자신을 둘

카프카: 어떤 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여자 없이 살 수도 없지만 여자하고도 살 수 없는 나의 무능력’에 대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누구와도 공유하는 삶을 꿈 꿀 수 없었다.

나: 당신의 삶은 어떤 끝없는 자연의 과정으로 보인다. 연인과의 약혼도 계속해서 유보되며 끝내는 무산될 뿐이다. 그래서인지 당신은 자신의 인간관계에 있어 어떤 미숙함과 가식을 감추는 동시에 드러낸다.

카프카: 뭔가를 해결하고 매듭을 지을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었던 것 같다. 나는 ‘처음으로 보행 연습을 하는 어린아이’ 같았다. 내게 삶은 하나의 거대한 수수께끼였다. 내가 더욱 오래 살았다면 나는 신비주의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글쓰기에 대해, 문학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강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당신은 “나는 문학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며 그럴 수도 없습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당신의 생활은 당신이 글쓰기에만 몰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카프카: 나는 ‘글 쓰는 도구와 램프를 갖고 밀폐된 넓은 지하실의 가장 깊숙한 곳에 앉아’ 있기를 바랐지만 그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나: 그럼에도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태와 현실과의 깊은 괴리가 당신 작품의 한 원천이 된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카프카: 그럴 것이다.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현실 역시 나의 작품 속으로 들어와 그 안에서 녹아들었다. 나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변명을 만들어내야 했고, 내가 쓴 글들 속의 인물들이 나 대신 그 변명들을 하게 함으로써 나는 그 뒤로 숨는 편을 택하기도 했다.

나: 당신이 펠리체에게 보낸 편지의 어떤 구절, 즉 “오늘 그대에게 ‘화부’를 보냅니다. 거기에 나오는 어린 청년을 호의로 맞아들여 그대 옆에 앉힌 다음 그의 소원대로 그를 칭찬해주세요”는 당신의 현실과 작품의 경계가 사라지는 어떤 지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카프카: 내가 펠리체에게 보낸 또 다른 편지에서 “지난밤에 아이젠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옆에서 ‘카알은 뭘 하고 있지?’ 하고 말했습니다. 뒤돌아보니 내게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한 남자가 혼잣말을 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도 혼잣말이었습니다. 카알은 내 소설에 등장하는 불행한 주인공입니다. 악의 없이 내 곁을 지나가던 그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그 과제를 제기함으로써 나를 비웃는 셈입니다. 그의 말을 격려로 여길 수는 없으니까요” 하고 쓴 것도 작중 인물과 현실의 인물이 뒤섞이는, 내 안에서 현실과 그 너머에 있는 것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비가 내리는 가운데 당신과 함께 이곳 공동묘지에 있는 것 또한 꿈속의 어떤 장면처럼 여겨질 뿐이다.

나: 간간이 들리는 까마귀의 울음소리는 그런 느낌을 더욱 강하게 들게 할 뿐인 것 같다.

카프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어떨지?

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사이에 짙어가는 안개 속에서 당신과의 영원한 작별이 이루어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내가

‘여자 없이 살 수도 없지만

여자하고도 살 수 없는

나의 무능력’에 대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누구와도 공유하는

삶을 꿈 꿀 수 없었다

”

기를 나눌 수 있을지?

카프카: 한데 무덤밖에 없는 이곳이 우리가 얘기를 나누기에 괜찮을지?

나: 더없이 괜찮다. 마치 삶을 파고드는 것 같은 이곳의 적막함과 평화로운 느낌이 너무도 좋다.

카프카: 나도 내가 죽어지내기에 이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

나: 다행히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어 인적은 끊기고, 까마귀들만 묘비 사이를 배회하고 있다.

카프카: 저것들은 언제나 나의 좋은 친구들이었지.

나: 당신이 죽은 지도 벌써 80년이 넘었다. 그사이 어떻게 지냈는지?

카프카: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지냈나니? 죽음은 마치 아무런 꿈도 꾸지 않는 영원한 잠을 자는 것과도 비슷하다.

나: 나는 전에는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후에 우리가 유령으로서 또 하나의 삶을 살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기울고 있

당신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우선 당신은 결국 당신의 목숨을 앗아간 결핵으로 인해 긴 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다. 병의 그림자가 당신의 삶에 너무도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당신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

카프카: 나는 오랜 동안 커다란 고통을 겪었고, 고통은 내가 결국 껴안아야 하는 어떤 것이었다. 글쓰기는 내게 나의 고통을 치유하지는 못하지만 둔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이었다. 나는 소설 속에서 인물들을 그려냄으로써 현실 속의 나의 고통의 어떤 부분들을 지울 수 있었다. 어쩌면 그것은 발자크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진 것을 느끼고 ‘고리오 영감’에 등장하는 의사 비앙송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다고 비유적으로 말한 것과도 비슷할 것이다. 나 자신 또한 “내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의사는 내가 글을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라고 했다.

나: 당신의 작품들 속에서도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지만 당신이 육체적인 병 외

러한 모든 것이 환영처럼 여겨진다.

카프카: 어쩌면 우리 모두가 환영에 지나지 않는 존재일 뿐인지도 모르지.

나: 좀 더 사실적인 것을, 그런 게 있다면 말이지만, 얘기를 해보자. 당신의 보다 직접적인 면이 노출된 당신의 편지들을 읽은 후 가장 놀라웠던 건 그 엄청난 양이다. 가족과 일과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친구들과 연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모두 합하면 천 통이 훨씬 넘는다. 그렇게 많은 편지를 쓰게 만든 것은 어떤 이상한 열정처럼 보인다.

카프카: 이상하다면 이상한 열정일 것이다. 누군가에게 나의 심경을 토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내 앞에 너무도 길게 펼쳐져 있었으니까.

나: 한데 그 편지들은 당신과 상대를 연결시켜주기보다는 당신 스스로 그들과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한 방식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심지어는 펠리체에게 보낸 편지들 역시도 ‘대립적인 세계 사이의 경계’를 보여주고 있다.



일러스트레이터 金多海(서양화02-07)

동 정

수 상

▲李在昌(법학56-60 새마을운동 중앙회장)= 지난 5월 18일 몽골 차하야긴 엘베그도르지 대통령령으로부터 몽골 새마을운동 보급에 기여한 공로로 ‘나이탐달(평화친선)훈장’ 수훈.

▲金相福(종교57-63 세계복음주의연맹 회장)= 최근 미국 인디애나 그레이스대학 졸업식에서 우수 동문상 수상.

▲裴榮昊(섬유공학63-70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장)= 지난 6월 30일 제19회 다산경영상(전문경영인 부문) 수상.

▲吳旭煥(교육67-71 이화여대 교수)= 지난 5월 31일 이화여대 창립기념식에서 제6회 이화학술상 수상.

▲林國煥(수의학69-73 고려대 보건과학대학장)= 지난 6월 3일 한국환경보건학회로부터 제12회 환경보건대상 수상.

▲金容珍(의학69-75 모교 흥부의과학교실 교수)= 지난 6월 14일 중국 정부가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최고상인 ‘友誼賞’ 수상.

▲朴鍾郁(식물72-76 모교 생명과학부 교수)= 지난 6월 4일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홍조근정훈장 수훈.

▲朴勝俊(중문74-78 인천대 초빙교수·본보 논설위원)= 지난 6월 9일 한국언론인연합회로부터 제6회 한국참언론인대상(국제부문) 수상.

▲金承禧(약학74-78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지난 6월 22일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 진흥상 수상.

▲崔今洛(무역76-80 SBS 보도본부장)= 지난 6월 9일 한국언론인연합회로부터 제6회 한국참언론인대상(방송경영부문) 수상.

▲朴魯承(무역77-81 경향신문 편집국장)= 지난 6월 9일 한국언론인연합회로부터 제6회 한국참언론인대상(경제부문) 수상.

▲張明宇(치의학83-89 하버드대 교수)= 최근 하버드대 졸업식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교수상 수상.

인 사

▲鄭元植(교육48-54 前국무총리·모교 교육학과 명예교수·본회 고문)= 지난 6월 14일 유한재단 이사장에 취임.

▲尹銘重(정치53-57 한국언론인포럼 회장)= 지난 5월 28일 한국언론인포럼 총회에서 임기 3년의 제4대 회장에 재선임.

▲洪在馨(상학56-60 前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국회의원)= 지난 6월 8일 18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에 선출.

▲朴燾太(법학57-61 국회의원·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지난 6월 8일 18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

▲河舜鳳(독어교육60-64 한나라당 상임고문)= 지난 6월 16일 경남일보 회장에 취임.

▲李俊一(정치61-65 중앙대 명예교수)= 지난 6월 22일 우리나라 문화예술 지도자들의 모임인 예장로타리클럽 회장에 취임.

▲朱德永(기계공학62-66 前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지난 6월 3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초대 원장에 임명.

▲具滋興(미학63-70 명동에술극장장)= 지난 6월 18일 재단법인 국립극단 초대 이사장에 임명.

▲明魯昇(법학65-69 법무법인 바

른 고문변호사)= 지난 6월 3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장에 위촉.

▲玄定澤(경제67-71 前한국개발연구원장·인하대 교수)= 지난 6월 21일 임기 3년의 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위촉.

▲李京浩(법학69-73 前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인제대 총장)= 지난 6월 9일 한국제약협회 제20대 회장에 선출.

▲具滋允(전기공학71-75 한양대 교수)= 지난 6월 9일 지식경제부 산하 전기위원회 위원장에 위촉.

▲智昌勳(교육71-77 대한항공 총괄사장)= 지난 6월 8일 한국·우즈베키스탄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에 선임.

▲鄭仁成(경영71-75 前산업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 지난 6월 14일 산은캐피탈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金鎮禹(농경제73-77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소장)= 최근 제9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에 선임.

▲權泰鈞(경영74-78 前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조달청장)= 지난 6월 7일 주아랍에미리트 대사에 임명.

▲安洋玉(체육교육75-79 서울교대 교수)= 지난 6월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34대 회장에 선출.

▲李惠民(영문76-80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 지난 6월 17일 주필리핀 대사에 임명.

▲李代馥(행정77-81 前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인천공항세관장)= 지난 6월 22일 관세청 차장에 임명.

▲金東郁(외교93-97 프리먼 스포츠킴리 산하 연구소 연구원)= 오는 9월부터 시카고대 정치학과 티칭 포스트닥터로 강의.

▲金學權(AMP 21기 재영솔루텍 회장)= 지난 6월 11일 인천경영자총협회 임시총회에서 임기 3년의 제13대 회장에 선출.

▲鄭義和(HPM 3기 국회의원·세계스카우트의원 연맹 총재)= 지난 6월 8일 18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에 선출.

행 사

▲李吉女(의학51-57 경원대 총장·가천길재단 회장·세살마을 총괄멘토·본회 부회장)= 지난 6월 28일 서울국립중앙박물관

응극장에서 영유아기 교육을 위한 '세살마음' 발대식 개최.

▲李光奎(역사교육56-60 모교 인류학과 명예교수·재외동포포럼 이사장)=지난 6월 24일 서울 해화동 방송통신대에서 제17차 포럼 개최.

▲孫京植(법학57-61 CJ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환경보전협회장·본회 부회장)=지난 6월 9~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32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시회 개최.

▲李炯均(정치59-64 한국신문방송인클럽 회장·경향신문 사우회장·본회 부회장)=지난 6월 29일 서울 무교동 아시아 오리에에서 경향신문 사우회 총회 개최.

▲李長茂(기계공학63-67 모교 총장·기후변화센터 이사장)=지난 6월 24일 서울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기업간 네트워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전략'을 주제로 포럼 개최.

▲金勳東(농학63-69 수원예총 회장)=지난 6월 22일 수원미술관에서 '수원예술의 내일을 펼친다'는 주제로 전시예술작품전 개최.

▲金光顯(의학66-72 모교 이비인후과학교실 교수·대한두경부종양학회 회장)=지난 6월 15~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4회 세계두경부종양학회 개최.

▲崔鍾武(외교68-72 유엔거버넌스센터 원장)=지난 6월 17~18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를 주제로 국제회의 개최.

▲李光澤(행정68-75 국민대 교수·한국사회법학회 회장)=지난 6월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안전보건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郭贊浩(신대원69-71 한국통일문화연수원 이사장)=최근 6·25 참전 유공자 및 서울시 보훈단체 간부 대상의 교양교육 실시.

▲安炳燦(신대원71-75 언론인권센터 이사장·본보 논설위원)=지난 6월 22일 서강대 가브리엘관에서 'C의 눈으로 미디어 보기' 주제의 제4회 언론인권 10강 개설.

▲金民淑(기약72-76 국민대 겸임교수)=지난 6월 7일 서울 세종대미술관에서 슈베르트, 베토벤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朴明潤(보대원74-76 청소년보호위원장·한국아동청소년가족포럼 상임대표·관악회 이사)=지난 6월 10일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학업중단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 개최.

▲李相起(서양사학81-87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본보 논설위원)=지난 7월 9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외신기자클럽에서 산악인업

홍길·오은선 씨를 초청해 'Cheer Challenge AJA포럼' 개최.

▲趙晟娟(기약88-92 바이올리니스트)=지난 7월 14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브람스, 멘델스존 등의 작품으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金成恩(기약92-96 상명대 겸임교수·비올리스트)=지난 6월 21일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힌데미트 비올라 소나타 전곡 시리즈II(격정과 자유) 독주회 개최.

▲조유리(기약96-00 코리아필하모니오케스트라 악장)=지난 7월 13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金泰完(ACAD 44기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지난 6월 20일 경남 양산서창고교에서 6·25전쟁 희생자 호국영령위

령전도제 개최.

▲金鎮敦(HPM 4기 문제당학의원장·송파문인협회 회장)=지난 6월 2일 서울 석촌동에 송파문인협회 사무실 개

소. 또 12일 경기도 하남시 은고공원에서 여름 정기세미나 개최.

■ 참가 명복을 빕니다 ■

蔡汶植 前국회의장

지난 6월 26일 蔡汶植(정치44-48)前국회의장(사진)이 서울 구로동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86세.

경북 문경 출신으로 중앙고와 모교를 졸업한 고인은 1971년 신민당 전국구 의원으로 제8대 국회에 입성한 후 13대 국회까지 연이어 6선 의원을 지냈다. 11대 국회 후반기에 입법부를 이끌었으며 1988년에는 5공화국의 마지막 집권당(민주정의당) 대표를 지냈다. 1990~1992년 남북국회회담 수석



대표로 활약하기도 했다.

정계를 떠난 뒤에는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전·

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장, 본회 고문 등을 지냈다.

유족으로 KAIST 채경철(물리69-74)교수, 우영유암 채경호(기계공학70-74)대표, 채경탁(사업)씨 등 3남과 딸 경원 씨, 사위 박을영(사업)씨가 있다. 장자는 국립대전현충원.

▲宋政求(경성고공41졸 前한국건축가협회장)=6월 7일 별세(90세)

▲朴商烈(법학45-50 前제주도지사)=6월 14일 별세(87세)

▲申鉉稷(경제45-51 한상무역 이사)=6월 28일 별세(88세)

▲金裕埴(정치47-51 前국회의원)=6월 27일 별세(85세)

▲崔建成(화학공학48-56 前덕성여고 교장)=6월 23일 별세(81세)

▲郭炳樺(농학48-52 고려대 명예교수)=6월 22일 별세(80세)

▲吳炳文(교육48-52 前교육부 장관)=6월 21일 별세(83세)

▲文玄龍(생물교육51-56 前광주상고 교장)=6월 7일 별세(79세)

▲金泰卿(법학52-56 前경기도지사)=6월 7일 별세(77세)

▲文成哲(상학54-58 前영화회계법인 대표)=6월 10일 별세(76세)

▲李載偉(조선항공56-63 前한승기공 부사장)=6월 16일 별세(75세)

▲鄭孝燮(사회59-65 다락원 사장)=6월 9일 별세(71세)

▲朴松子(화학교육63-67 前KIST책임연구원)=6월 27일 별세(66세)

▲金中彦(체육교육64-68 군산대 교수)=6월 8일 별세(65세)

▲金相河(정치67-71 대능비독 대표)=6월 20일 별세(64세)

▲李萬甲(대학원73졸 모교 사회학과 명예교수)=6월 19일 별세(89세)

▲金琦世(항공공학76-80 전남도립대 교수)=6월 6일 별세(52세)

▲權五炯(AMP 61기 한전KPS 사장)=6월 17일 별세(60세)

▲平錫泰(AMP 64기 前LIG넥스원 부회장)=6월 10일 별세(60세)

▲洪世基(ACAD 26기 前국회의원)=6월 22일 별세(81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219호
- e메일 : snua@paran.com 또는 snua1969@naver.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신 간

■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 崔萬立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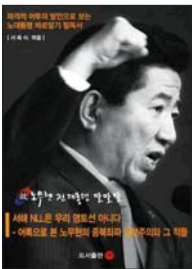
대한체육회 부회장, 대한올림픽위원회 (KOC) 부위원장, 남북체육회담 한국대표 등을 지낸 한국 스포츠외교의 산증인 崔萬立(행정 54입 이낙반도체 회장)등문이 1980년부터 현재까지의 한국스포츠외교사에 얹힌 秘史를 자서전 형식으로 펴냈다.

스포츠외교를 위해 전 세계를 누볐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스포츠외교사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86서울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2002한일월드컵 유치 성공과 두 번에 걸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담았다. 올림픽 유치를 성공시키기 위한 노력, 유치 과정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만날 수 있다. (생각의나무刊·값30,000원)

■ 서해 NLL은

우리 영토선 아니다

— 徐玉植 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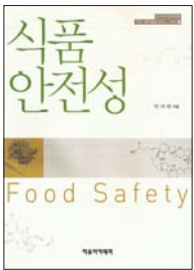
연합뉴스 편집국장을 지낸 徐玉植(동양사학 69-73 성결대 초빙교수·본보 논설위원)등문이 盧武鉉 前대통령이 남긴 어록을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재구성한 책.

‘어록으로 본 노무현의 종북좌파 진보주의와 그 적들’이라는 부제의 이 책에서 徐동문은 盧武鉉 前대통령의 말 가운데 유독 보수를 비난하고 시장주의를 부정하는 말이 많았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태도를 유지하면서 서도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부정적 언급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徐동문은 “盧 前대통령을 비하하거나 폄하할 생각은 없다”면서 “다만 盧 前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우리사회의 편가르기과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이 점에 있어서는 비판적인 관점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도리刊·값18,000원)

■ 식품안전성

— 李瑞來 지음



이 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를 지낸 故李瑞來(농화학 51-55) 등문의 마지막 저서. 이 책은 먼저 식품의 안전성 문제를 다루는 과학적 시각과 사회적 규제, 평가체계를 정의하고 유독물질의 분석 기술과 독성학의 기초이론에 대해 소개한다.

또 식품 중의 잔류농약과 안전성 평가, 중금속 오염과 위해성, 식품첨가물의 사용현황과 안전성, 동물용 약품의 사용과 잔류성 규제, 곰팡이독소, 자연식품 중의 천연독소에 대해 기술하는 등 방대한 국내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자유아카데미刊·값 39,000원)

■ 회의를 잘하는 법

— 全英雨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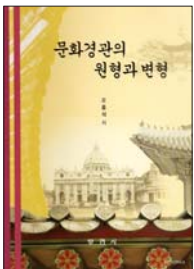


KBS 아나운서 실장을 지낸 수원대 全英雨(국어교육 53-57) 명예교수가 회의를 잘하는 법을 소개했다. 全동문은 “회의시대에 살면서 회의 및 회의법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마스터하는 일은 인생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라며 “사회 각 분야에서 이름을 떨친 성공한 사람은 회의를 잘한다”고 주장한다.

회의는 ‘통상적 회의’와 ‘의사법 회의’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의사법 회의 효시는 협성회(1896년)와 독립협회(1897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의 말미에 협성회 규칙과 독립협회 토론회 규칙도 살펴볼 만하다. (민지사刊·값 12,000원)

■ 문화경관의 원형과 변형

— 吳洪哲 지음



한국 과학 기술정보연구원(KISTI) 吳洪哲(지리교육 54-58) 전문연구위원이 문화경관에 대한 진

지한 탐구를 담아놓았다. 전통보전과 함께 시대에 부합되는 ‘과감한 再創造’을 강조한 내용이 담겨있는 책으로 주택, 건물, 도로, 교량, 불탑, 교회첨탑, 묘지 등 인위적으로 조성된 문화경관을 주제로 삼고 있다.

이 책은 민족문화의 독자성과 창의성을 내세우면서 국제무대에 당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우리고

유의 유형문화’가 어떤 것인지, 개선돼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점검하며 ‘재정립의 시대’를 열어가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부연사刊·값30,000원)

■ 이것이 북한종말

정후인가

— 柳錫烈 지음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를 지낸 柳錫烈(사회교육 58-62)등문이 북한종말의 징후 다섯가지를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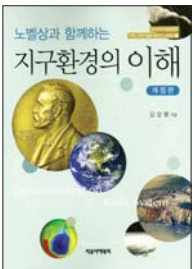
하고 있다. 첫째 심각한 경제난, 둘째 북한 주민들의 심각한 체제 이탈, 셋째 김정일의 건강악화와 승계 불투명으로 인한 체제 불안, 넷째 평양 권력 핵심 실세들의 계속되는 병사와 나머지 실세들의 심각한 질환, 다섯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위로 주변국들과 관계 악화 등이다.

이러한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북한은 초유의 벼랑 끝 외교전을 펼치고 있으나 생존의 길은 보이지 않는다고 柳동문은 지적하고 있다. (예영커뮤니케이션刊·값14,000원)

■ 노벨상과 함께하는

지구환경의 이해

— 金慶烈 지음



다. 모교 지구 환경 과학부 金慶烈(화학 67-71)교수가 지구에 대한 과학지식을 흥미롭게 풀어놓았

다. 바닷물이 왜 짠지, 46억년이 된 지구의 나이는 어떻게 알게 됐는지, 지구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왜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은 지구뿐인지 등 한 번쯤 생각해봤을 법한 궁금증들을 과학자들은 어떻게 발견하고 해석했는지 설명해준다.

이 책은 우리가 편리하게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한 노벨상 수상자들의 이야기와 함께 지구의 비밀을 풀어가며 즐거운 지구여행을 선사한다. (자유아카데미刊·값 29,000원)

■ 여성에게 다시

정치를 묻다

— 여성정치포럼 발행

민주노동당 崔順永최고위원,

공 연

■ 文哉然 피아노독주회

— 7월 19일 예술의 전당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독주회를 연다.

독일 쾰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文동문은 이날 스칼라티의 소나타를 비롯해 시마노프스키, 쇼팽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부암아트홀 391-9631)

■ 조소연 피아노독주회

— 7월 21일 예술의 전당



(사진)이 7월 21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피아노독주회를 갖는다.

이날 스칼라티, 베토벤, 드뷔시, 리스트 등의 작품으로 뛰어난 연주능력을 과시한다. (공연

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 李英姬 바이올린독주회

— 7월 26일 예술의 전당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이올린독주회를 개최한다.

KBS교향악단 제1바이올린 주자로 활동한 바 있는 李동문은 브람스, 슈만 등의 작품으로 신선한 연주를 보여준다. (공연문의: 부암아트홀 391-9631)

■ 李柱慧 피아노독주회

— 7월 30일 예술의 전당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러시아와의 수교 20주년 기념 피아노독주회를 연다.

이날 차이콥스키, 라흐마니노프, 보로딘, 프로코피예프, 발라키레프 등 러시아 작곡가들의 음악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지음기획 2265-9235)

■ 대한민국 최남단 이어도

— 玄鏡柄·朴龍安 외 지음



玄鏡柄(행대원 85-87) 국회의원과

국회의원과 모교 지구환경과학부 朴龍安(지질과학 57-61) 명예교수 등이 우리의 해양영토 이어도에 대해 알기 쉽고 재미있게 엮었다.

이 책은 7부로 구성돼 있으며 이어도의 지리적 위치와 지형, 구전돼오는 신화와 전설, 고문헌자료와 제주도민의 증언을 담은 역사, 종합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소개, 미래 가치 등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 최남단은 이젠 마라도가 아니라 이어도”라면서 청소년들에게 이어도에 발을 딛고, 드넓은 태평양을 향해 큰 꿈을 품으라고 말한다. (셋별다앤파刊·값10,000원)



인천 洪美英 부평구청장, 서울 서대문구의회 徐貞順(소비자아동학 88-92) 의원 등 지역민들을 위

해 발로 뛰고 있는 여성의원 10명이 ‘여성에게 다시 정치를 묻다’를 통해 여성으로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여성이 하는 정치는 무엇이 다른지를 말하고 있다. 여성정치포럼 李正子(독문 59-63)대표는 발간사에서 “진솔한 현장 고발, 사심 없는 정치활동, 여성의 정체성과 대표성을 염두에 둔 의정활동, 현실정치를 뛰어넘는 고군분투와 좌절, 지방자치의 본질을 지켜내는 여성정치인들의 풀뿌리 지방정치에 대한 귀중한 경험들을 묶은 이 책은 새로운 정치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사刊·값 10,000원)

장학빌딩 건립기금 모금은 계속됩니다

〈참여 기회 놓치지 말고 서두릅시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827-01-0248-017 / 신한은행 343-05-019330 / 농협 069-01-272391 [예금주 : (재) 관악회]

목표액 : 300억원

- ◆50억원
 - △임광수(기계공학48-52)
- ◆20억원
 - △김종섭(사회사업66-70)
- ◆15억원
 - △故박관호(화학교육51줄)
 - 신명규(생물교육48-54)
- ◆10억원
 - △강신호(의학46-52)
 - △곽영필(토목공학56-60)
 - △구평희(정치학47-51)
 - △김상하(정치학45-49)
 - △김은중(경제학59-63)
 - △김정식(전자공학48-56)
 - △김형주(토목공학46-50)
 - △박호진(경영학62-66)
 - 김영희(작곡62-66)
 - △신창재(의학72-78)
 - △오동영(조선항공54입)
 - 김찬숙(치의학56-60)
 - △윤세영(행정학56-61)
 - △이준용(경제학56-60)
 - △정계영(상학61-66)
 - △정팔도(AIP 1기)
 - 이자행
 - △홍성대(수학57-63)
- ◆5억원
 - △김주진(법학54입)
 - △조기호(화학교육54-58)
 - 이영자(생물교육56-60)
- ◆3억원
 - △김병순(AMP 4기)
 - 이지호(의학77-83)
 - △이길여(의학51-57)
 - △정석규(화학공학48-52)
 - △허남각(경제학56-60)
- ◆2억원
 - △남정현(건축학57-61)
 - △손경식(법학57-61)
 - △이종기(경영학69-73)
 - △이준행(섬유공학48-54)
 - △장용택(약학55-61)
 - △장학순(토목공학46-50)
 - △조필제(조선항공46-50)
- ◆1억5천만원
 - △故김도창(법학43-47)
 - 목춘5부자
- ◆1억3천5백만원
 - △장병덕(화학교육53-57)
- ◆1억2천만원
 - △엄병윤(외교학60-64)
- ◆1억1천1백20만원
 - △미술대학동창회
- ◆1억1천만원
 - △성백전(토목공학52-56)
 - 김안순(화학공학54-58)

- △수학과동창회
 - ◆1억30만원
 - △김동길(화학교육57-61)
 - △박성훈(기계공학58-63)
 - ◆1억원
 - △강순걸(법학54-58)
 - △곽동현(법학61-65)
 - △김두희(물리학52입)
 - △김문현(상학58-64)
 - △故김영경(기계공학52-56)
 - △김정철(건축학52-56)
 - 김정식(건축학54-58)
 - △김창식(전기공학53-57)
 - △나공목(상학56-61)
 - △남상용(건축학52-57)
 - △노인환(경제학54-58)
 - 故한명화(가정교육60줄)
 - △류중희(기계공학53-57)
 - △명태현(기계공학46-50)
 - △박명윤(보대원74-76)
 - 이행자(보대원69-71)
 - △박실상(AIC 9기)
 - △박희백(의학51-57)
 - △변주선(영어교육60-64)
 - △서정화(법학51-55)
 - △故손치무(대학원70줄)
 - △안성철(행정학58-63)
 - 손윤숙
 - △故양은숙(간호학51-54)
 - △故오영현(섬유공학7-71)
 - 추경옥
 - △오홍조(치의학56-61)
 - △우인성(기계공학58-62)
 - △유상부(토목공학60-64)
 - △이금기(약학55-59)
 - △이상범(법학53-57)
 - △이수범(행정학56-60)
 - △이예식(약학46-49)
 - △이정상(상학59-65)
 - △이지호(의학77-83)
 - △이해원(행정학51-55)
 - △장세일(전기공학59-63)
 - △장중환(의학69-76)
 - △전동용(수의학52-56)
 - △정윤환(임학56-62)
 - △정충시(화학공학72-76)
 - △조경일(약학64-68)
 - △조병우(섬유공학59-64)
 - △지원철(축산학73-77)
 - △최두형(행정학51-55)
 - △최상홍(기계공학54-58)
 - △최희장(섬유공학58-64)
 - △홍상욱(원예학83-87)
 - △홍예표(치의학65-71)
 - 김영숙
 - △보건대학원동창회
 - ◆6천만원
 - △김윤택(경대원68-70)
 - △이창원(법학55-60)

- △화학과학동창회
 - ◆5천5백만원
 - △농대 그린장학회
 - ◆5천2백만원
 - △이현조(철학52-57)
 - ◆5천50만원
 - △하상완(치의학64-70)
 - ◆5천30만원
 - △이중현(경제학59-65)
 - 신갑순
 - ◆5천10만원
 - △박남식(SCS 2기)
 - ◆5천만원
 - △강인규(수의학59-64)
 - △공대식(기계공학56-60)
 - △김정희(약학57-61)
 - △김종기(생물교육51-55)
 - △김중서(경제학58-63)
 - △김중현(경제학55-59)
 - △류재명(AMP 34기)
 - △마국철(공업교육68-72)
 - △박주탁(무역학69-74)
 - △손일근(법학51-64)
 - △노만수(의학72-78)
 - 송정희(식품영양74-78)
 - △안 훈(수의학53-57)
 - △오인석(행정학58-62)
 - △유중해(법학50-54)
 - △이도경(농학56-63)
 - 이찬진(기계공학84-89)
 - △이순석(약학61-65)
 - △이승준(섬유공학56-60)
 - 이청원(자원공학67줄)
 - △이운주(의학81-87)
 - 오지은(인류학83-87)
 - △이원규(농생물학58-63)
 - △이재원(상학55-59)
 - △이중대(천문기상69줄)
 - △이형도(화학공학61-67)
 - 박효순(영어교육66-70)
 - △정대영(경제학51-55)
 - △정재봉(사회사업60-64)
 - △지창수(상학55-59)
 - △故하권익(의학57-63)
 - △하부열(경영학74-78)
 - △허병하(상학58-62)
 - △황해근(토목공학54-60)
 - 故이금옥
 -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 △농대 일산회
 - △한우리SJM
 - ◆3천60만원
 - △원정수(건축학53-57)
 - 지 순(건축학54-58)
 - ◆3천만원
 - △강신혁(문리66-73)
 - △고원호(기계공학48줄)
 - △박홍일(영어교육60-64)
 - △송명호(자원공학59-65)

- △심형운(토목공학52-56)
- △유석홍(무역학61-65)
- 박영희(기약70줄)
- △이경택(섬유공학57-61)
- △이광식(약학66-70)
- ◆2천만원
 - △강학순(기계공학64-69)
 - △고은희(생물교육53-58)
 - △김원일(건축학61-65)
 - 최미혜(성악66-70)
 - △故김재백(약학52-56)
 - △서병문(농공학69-73)
 - △故윤세극(경제학45-51)
 - △조갑주(경제학58-63)
 - 정정영(불어불문62-66)
 - △최정길(금속공학52-56)
- ◆1천5백만원
 - △김철순(조경학76-83)
 - △이재형(기계설계76-80)
 - 이승희(전기공학06-10)
 - △한규택(원자핵공73-77)
 - △치불희
- ◆1천2백만원
 - △강웅선(치의학78-84)
 - △김현산(법학54-58)
 - △김형오(외교학67-71)
 - △심영보(의학55-61)
 - △안동일(법학59-63)
 - △오상호(전기공학48-55)
 - △이내원(화학교육58-62)
 - △이재철(법학70-77)
- ◆1천1백50만원
 - △천남중(자원공학65-69)
- ◆1천1백30만원
 - △신면우(의학50줄)
- ◆1천1백20만원
 - △윤홍중(약학55-59)
 - 故이상임
- ◆1천1백10만원
 - △손수일(법학74-78)
 - △이홍중(역사교육54-58)
- ◆1천1백만원
 - △김상복(종교학57-63)
 - △김상수(자원공학73-77)
 - 김태훈(건축학02-07)
 - △정해남(법학72-76)
- ◆1천80만원
 - △서병태(의학54-60)
 - △조내규(약학58-62)
- ◆1천70만원
 - △김정범(치의학60-66)
- ◆1천60만원
 - △박준욱(약학55-59)
- ◆1천30만원
 - △박만호(행정학57-62)
 - △심이택(화학공학57-63)
 - △이영필(항공공학66-71)
 - △이형하(법학74-78)
 - △지현택(치의학43-47)



- △허성길(경제학60-64)
- ◆1천10만원
 - △이인규(지구과학59-65)
- ◆1천만원
 - △강신주(사회교육51-55)
 - △강용현(법학71-78)
 - △강형언(토목공학61-65)
 - △고광우(행정학53-58)
 - △공구영(물리교육54-58)
 - △권동은(FIP 4기)
 - △권혁웅(불어불문59-63)
 - △김진호(법학50-58)
 - △김 철(기계공학64-68)
 - △김기춘(법학58-62)
 - △김두만(상학59-63)
 - △김미령(약학74줄)
 - △김백준(수학62-66)
 - △김병린(토목공학55-59)
 - △김상호(법학72-76)
 - △김선양(중어중문84-88)
 - △김연호(화학공학71-75)
 - △김영갑(법학74-78)
 - △김영석(경제학60-66)
 - △김영재(공업화학77-81)
 - △김원배(동물학55-60)
 - △김윤중(약학64-71)
 - △김은식(국사학73-80)
 - 윤영옥(생물교육72-76)
 - △김일섭(경영학64-69)
 - △김재범(산업공학74-78)
 - △김재호(생물교육53-57)
 - △김주환(토목공학57-61)
 - △김진규(기계공학61-66)
 - △김찬욱(기계공학55-59)
 - △김철수(법학52-56)
 - △김평우(법학63-67)
 - △노병수(공법학83-87)
 - △류태환(상학48-54)
 - △문규철(응용화학69-73)
 - △문대원(경영학71-75)
 - △문명국(기계공학73-75)
 - △문성훈(식품공학86-92)
 - △박덕철(기계공학57-61)

- △박명학(영어교육61-65)
- △박영준(상학60-66)
- △박종국(농화학57-63)
- △박준우(의학75-81)
- △박진희(무역학76-80)
- △박창우(경제학80-84)
- △배명인(법학52-56)
- △백사익(채광학40-42)
- △변상현(의학51-57)
- △서계숙(기약56-60)
- △석학진(상학58-64)
- △설동섭(축산학53-57)
- △신방호(경제학67-71)
- △신윤식(사학55-59)
- △신혜순(가정교육47-51)
- △안경상(행정학57줄)
- 김정애(가정교육54-58)
- △양배덕(전기공학57-61)
- △양성철(정치학58-64)
- △엄기영(사회학70-74)
- △오병제(AMP 21기)
- △오용섭(임학60-66)
- △유형록(의학57-63)
- △유홍수(법학58-65)
- △유희춘(상학49-55)
- △윤영석(경제학58-64)
- △윤희진(축산학63-67)
- △이강수(상학51-55)
- △이경호(행정학61-65)
- △이계우(행정학58-63)
- △이동철(토목공학78-82)
- △이문한(수의학66-73)
- △이병재(경대원69줄)
- △이병형(화학67-71)
- △이상현(정치학64-68)
- △이석운(영어영문50줄)
- △이세중(행정학53-57)
- △이송은(상학53-57)
- △이인기(지질과학62-66)
- △이재후(법학58-62)
- △이전규(임학60-64)
- △이중웅(기계공학65-69)
- △이진규(치의학78-84)

△이창기(약학55-59)
△장무환(경제학45-51)
△장세권(농공학70-76)
△장익용(기계공학54-58)
△장지준(의학70-77)
△장휴동(농경제학59-63)
△조길웅(HPM 14기)
△조원환(AMPP 6기)
△조정훈(자원공학75-81)
△최규팔(계약학70-74)
△최남해(상학52-56)
△최선집(사회교육75-79)
△최승철(기계공학66-70)
△최준기(조선항공57-61)
△추재욱(의학63줄)
△표상기(원자력공61-65)
△하영기(정치학44-48)
△한창섭(정치학57-62)
△故함인영(기계공학48줄)
△함정호(행정학53-57)
△허 선(정치학64-68)
△홍순자(독어교육61-65)
△항경로(AMP 11기)
△항남주(물리학87-92)
△전북지부동창회
△간호대학동창회
◆7백만원
△정경모(행대원65-67)
◆6백만원
△오창석(전기공학46-50)
△이재식(교육학75-79)
◆5백만원
△김영수(법학60-64)
·원준손(국어국문64-68)
△박수복(농생물학56-61)
△서립규(토목공학57-61)
△송진해(공업교육63-72)
△신박일(약학60-64)
△윤성근(공업교육74-78)
△윤순녕(간호학69-73)
△윤익석(축산학49-53)
△이기수(대학원70-72)
△이윤경(간호학65-69)
△이현구(AMP 52기)
△정주석(법학61-65)
△조상근(행정학69-73)
△법대37회 동교회
△오사카지부동창회
△AMPFRI동창회
△FIP동창회(김명도)
◆4백30만원
△강충원(전기공학59-65)
◆3백90만원
△이정식(지구과학72-76)
◆3백50만원
△임장주(SPARC 11기)
◆3백30만원
△김석만(화학57줄)
△이종복(응용미술62-66)
◆3백10만원
△인효석(농공학80-87)
△최병호(화학교육57-61)
△한규범(AMP 42기)
◆3백만원
△강영현(농경제학69-76)
△권숙일(물리학54-58)
△권혁창(지구과학69-76)
△김인규(정치학69-73)
△김재율(경성법전39줄)
△김형기(불어교육72-76)
△박궁식(화학54-58)

명예의 전당에 내 이름을!!

일반회원 10만원 · 이사 30만원 이상

△안재동(상학60-67)
△이동수(건축학61-66)
△이성기(행대원63-65)
△임채주(경제학55-59)
△정영채(수의학56-60)
△하재규(농학53-57)
△황선용(사회교육57-61)
◆2백50만원
△김혜경(생물교육70-74)
△홍순명(축산학68-72)
◆2백30만원
△신성우(AMP 32기)
△이준형(GLP 11기)
◆2백만원
△나정우(농공학72-77)
△문창극(정치학68-72)
△故박태원(정치학46-50)
△성기학(무역학66-70)
△심상우(축산학57-61)
△오복동(법학57-63)
△유지열(외교학84-88)
△윤정일(교육학62-66)
△윤정철(의학59-65)
△이경렬(응용미술69-73)
△이원태(농경제학64-68)
△이원환(토목공학49-53)
△이종순(법학57-61)
△이홍구(법학53입)
△이희호(교육학46-50)
△임규은(행정학53-57)
△정낙찬(서양사학9-73)
△정용인(법학60-64)
△최인갑(금속공학57-62)
△최창식(의학54-60)
△한영국(경제학50-54)
△허영호(전자공학71-75)
△홍석준(사회학73-77)
△황선태(법학66-70)
△황의인(법학74-78)
◆1백80만원
△노 영(의학70-77)
◆1백60만원
△이규대(AIP 36기)
◆1백50만원
△곽 승(화학공학59-63)
△김건호(수의학70-74)
△윤옥영(수학58-61)
△이기남(수학67-71)
△이진호(화학공학85-89)
△정성진(법학58-63)
△조귀장(사법학86-90)
·김주영(지리학92-97)
△조현래(대학원75입)
△채규대(경제학56-60)
◆1백40만원
△이병상(사회학61-65)
◆1백30만원
△김영균(법학57-59)
△김종철(치의학71-77)
△김진익(법학55-60)
△문일환(치의학65-71)
△양동관(법학67-71)

△이용우(공업교육64-68)
△이태형(상학59-63)
△임한조(물리학67-71)
△정휘위(법학62-66)
△조병철(섬유공학59-65)
△최동식(법학76-80)
△최명재(상학48입)
△추호석(경영학69-73)
△현전욱(법학72-76)
◆1백23만4천5백67원
△김성수(농업교육63-67)
◆1백23만원
△홍정식(사회교육52-56)
◆1백21만원
△박정식(약학57-61)
◆1백20만원
△강호식(치의학57-61)
△김승환(상학67-71)
△김영도(축산학68-75)
△김용술(경제학56-62)
△김주현(의학65-71)
△김진원(건축학68-72)
△나명훈(의학76-83)
△부창렬(건축학77-81)
△송창기(중어중문57-62)
△이갑소(의학65-71)
△이계홍(농공학56-62)
△이상건(섬유공학74-78)
△이정우(AMPFRI 17기)
△이장건(전기공학49-54)
△조용국(사회학66-70)
△차왈보(의학53-59)
△황근영(생물교육50-54)
◆1백15만원
△이원영(ACAD 11기)
◆1백14만원
△故남기호(상학56-62)
◆1백13만원
△홍성욱(GLP 3기)
◆1백12만원
△이상훈(법학60-64)
◆1백10만원
△김 현(법학76-80)
△김금림(약학62-66)
△김기섭(정치학69-73)
△김기영(ACAD 49기)
△김도현(대학원74-76)
△김동만(GLP 15기)
△김선복(건축학62-66)
△김지호(화학공학55-59)
△명동근(경제학45-52)
△문철환(상학56-60)
△민미란(국악73-77)
△박영원(지리학74줄)
△박장순(기계공학64-68)
△백 철(상학56-61)
△백낙운(독어독문56-60)
△변재용(토목공학75-81)
△송경희(국악59-63)
△신동승(법학79-83)
△원우현(행정학61-65)
△유종일(신대원72-74)

△유해덕(법학53-57)
△이경보(토목공학46-50)
△이근남(불어불문68-72)
△이두현(행대원74줄)
△이명훈(농경제학69-73)
△이정자(국어국문50줄)
△이종팔(경영학76-80)
△전계묵(금속공학56-61)
△전영철(미학53입)
△조준래(AMPFRI 12기)
△지근진(농공학58-64)
△최연근(중어중문67-71)
△허신행(농경제학62-66)
△홍성완(토목공학62-66)
◆1백5만원
△장경만(의학80-87)
◆1백만원
△강구선(광산학63-67)
△강규석(물리교육58-62)
△강덕수(GLP 8기)
△강성수(섬유공학57-61)
△강성현(치의학69-75)
△강영복(상학51-55)
△강원일(행정학59-63)
△강정일(농경제학64-68)
△강종표(외교학76-83)
△강홍섭(화학공학59-63)
△고 건(정치학56-60)
△고병우(경제학52-56)
△고의식(수의학56-60)
△고재선(섬유공학52줄)
△고호근(AMP 58기)
△구재철(의학78-84)
△권광중(법학61-65)
△권순철(전자공학83-85)
△권이혁(의학41-47)
△김경동(사회학55-59)
△김교성(전기공학51-55)
△김국일(토목공학63-68)
△김규복(법학69-73)
△김규형(약학53-57)
△김기광(화학교육64-71)
△김기수(행정학47-51)
△김노수(섬유공학45-52)
△김달식(법학53-57)
△김덕영(토목공학45-47)
△김덕원(수의학50-54)
△김덕중(외교학71-75)
△김도연(행정학58-63)
△김동찬(생물교육51-55)
△김명자(화학62-66)
△김방연(상학52-56)
△김상원(농경제학52-56)
△김석건(농경제학50-55)
△김석기(행정학64-68)
△김석동(농학62-70)
△김석준(기계공학72-76)
△김승권(기계공학68-72)
△김연호(영어교육67-75)
△김영기(법학54-58)
△김영배(농공학78-85)
△김영수(경제학58-62)

△김영일(법학60-64)
△김영재(법학57-62)
△김용식(건축학70-74)
△김용운(치의학62-68)
△김용찬(농화학57-61)
△김우동(계산통계72-79)
△김유경(SPARC 2기)
△김윤재(상학54-58)
△김익모(AIP 23기)
△김인중(법학56-60)
△김일환(전문기상64-72)
△김재탁(법학78-82)
△김정일(금속공학58-64)
△김종국(농화학63-70)
△김종욱(경제학58-62)
△김주용(전기공학58-63)
△김준말(영어교육55-59)
△김중기(경제학54-58)
△김진세(법학61-69)
△김진우(약학54-58)
△김진호(법학57-61)
△김창국(법학56-60)
△김창순(경성여사범43입)
△김철빈(토목공학67-71)
△김태현(계약학71-75)
△김태흥(화학교육71-79)
△김풍오(원자력공68-72)
△김학균(약학51-55)
△김학원(법학66-70)
△김현재(법학56-61)
△김형욱(AIP 37기)
△김형진(기계공학51-55)
△김혜성(식품영양70-74)
△김호룡(법학48-52)
△김홍석(물리학70-74)
△김홍종(수학74-78)
△김화중(간호학63-67)
△김환수(법학52-56)
△김효종(법학61-65)
△김후란(가정교육53입)
△나도선(약학67-71)
△나종택(기계공학53-57)
△노승행(법학58-63)
△노정의(섬유공학46-50)
△노화준(섬유공학61-65)
△류종묵(상학59-65)
△류철호(토목공학67-71)
△마인경(지리교육56-60)
△맹호근(법학61-65)
△문광순(광산학60-64)
△박국양(의학75-81)
△박석흥(불어불문63-67)
△박성숙(의학65-71)
△박성철(법학75-79)
△박성태(의학58-64)
△박순익(치의학66-72)
△박순호(AMP 43기)
△박승균(조선항공63-67)
△박승용(영어교육76-80)
△박양수(영어교육55-59)
△박영숙(CHCN 3기)
△박영철(AMP 40기)

△박인원(의학76-83)
△박재형(의학66-72)
△박종찬(공업교육71-76)
△박종철(물리학61-66)
△박준서(법학58-64)
△박찬중(불어교육72-77)
△박해룡(상학58-63)
△박항숙(응용미술58-62)
△박흥일(영어교육60-64)
△배기선(AIP 25기)
△배상경(경제학56-61)
△배승환(기계공학58줄)
△배영한(상학49-58)
△배인준(철학70-74)
△백형배(화학공학47-53)
△변영삼(금속공학77-81)
△변영진(토목공학67-71)
△변종문(공업교육72-76)
△서광벽(재료공학73-77)
△석준형(물리학67-71)
△설흥기(대학원07-09)
△설희순(기계공학62-66)
△손두식(임학57-63)
△손원주(화학공학55-59)
△손환규(농업교육64-68)
△송병락(경제학59-63)
△송사일(농공학80-84)
△송언기(AMP 28기)
△송인상(경성고상35줄)
△송종환(외교학64-68)
△송호룡(AIC 19기)
△신명중(법학80줄)
△신수정(기약59-63)
△신용삼(경영학73-77)
△신원식(행정학57-61)
△신정균(농경제학54-58)
△신필재(약학55-59)
△신현길(응용물리65-69)
△신희명(물리교육49-54)
△신희섭(의학68-74)
△심장수(법학70-74)
△심재갑(행정학52-56)
△심한배(공업화학71-76)
△안상돈(행정학59-63)
△故안재환(공예92-04)
△안치득(전자공학76-80)
△안휘준(고고인류61-67)
△양해준(식품공학82-86)
△양호석(농화학57-63)
△염영섭(화학66-70)
△염준호(기계항공95-99)
△여운관(금속공학53-57)
△오경화(의류학81-85)
△오세종(경제학61-65)
△오윤덕(행정학61-65)
△오인석(전자공학57-62)
△오진환(법학75-79)
△오태환(법학53-57)
△우병규(정치학51-55)
△우세홍(생물교육60-65)
△우완식(경제학57-61)
△우종호(중어중문60-64)
△우효섭(토목공학72-76)
△유기영(기약86-90)
△유광식(화학58-62)
△유위중(농경제학72-80)
△유제운(조선항공51줄)
△유진무(상학62-66)
△유필상(전기공학66-73)
△윤근환(농학50-54)
△윤용철(경영학83-88)

△윤용혁 (독어교육60-64)
△윤원진 (HPM 6기)
△윤재석 (화학교육71-75)
△윤정혜 (화학교육59-63)
△윤충섭 (농공학55-61)
△윤홍식 (물리교육56-60)
△이 진 (외교학60-64)
△이경재 (화학59-63)
△이계관 (약학70졸)
△이광진 (법학77-81)
△이국진 (경영학77-81)
△이규호 (약학60-65)
△이근수 (신대원69졸)
△이기봉 (교육심리54-58)
△이기준 (경제학55-59)
△이기춘 (가정교육61-65)
△이돈구 (임학65-69)
△이동규 (전문기상65-74)
△이동녕 (금속공학57-61)
△이미현 (법학79-83)
△이병목 (의학54-60)
△이병일 (농학57-63)
△이병주 (의학61-67)
△이삼휘 (농화학66-70)
△이상욱 (경영학86-90)
△이상필 (치의학70-76)
△이석원 (AIP 36기)
△이성호 (농공학71-75)
△이수영 (전기공학88-92)
△이순형 (의학56-62)
△이승관 (금속공학64-71)
△이승구 (계산통계75-79)
△이승립 (국어교육66-70)
△이신자 (응용미술50-55)
△이영상 (상학51-55)
△이영상 (상학59-64)
△이용희 (간호학75졸)
△이우연 (정치학45-49)
△이우진 (농화학64-68)
△이의갑 (영어교육70-75)
△이인혁 (섬유공학54-58)
△이일훈 (상학55-60)
△이장무 (기계공학63-67)
△이재원 (기약53-57)
△이재원 (법학77-81)
△이정국 (토목공학62-66)
△이정숙 (응용미술65-69)

△이정우 (독어교육64-71)
△이정인 (광산학59-63)
△이종욱 (의학57-63)
△이주한 (역사교육53-57)
△이중환 (의학51-57)
△이진방 (경영학67-71)
△이창호 (기계공학55-61)
△이철영 (상학63-68)
△이철주 (상학59-65)
△이충웅 (통신공학54-58)
△이학숙 (회화54-58)
△이현식 (화학73-78)
△이현재 (경제학48-53)
△이형균 (정치학59-64)
△이형우 (수의학51-55)
△이호인 (응용화학66-70)
△이희숙 (영어교육61-65)
△임광환 (농경제학55-59)
△임미영 (회화77-81)
△임승빈 (건축학67-71)
△임이균 (약학61-65)
△임종두 (상학61-68)
△장권봉 (응용미술56-62)
△장삼진 (화학공학51-55)
△장성원 (영어교육57-61)
△장원갑 (기계공학63-67)
△장윤석 (법학68-72)
△장은식 (치의학89-93)
△장찬기 (HPM 8기)
△장철식 (섬유공학49-55)
△장해창 (법학74-78)
△장혜실 (성악69-73)
△전병일 (영어교육66-73)
△전정구 (경제학51-56)
△전종갑 (전문기상64-68)
△전준수 (토목공학61-65)
△전팔근 (영어교육47-52)
△정광섭 (상학66-74)
△정광현 (독어교육71-78)
△정근화 (물리교육63-70)
△정명희 (의학65-71)
△정민섭 (임학59-63)
△정병일 (독어독문78졸)
△정병해 (정치학49-53)
△정상조 (행정학57-62)
△정소성 (불어불문64-69)
△정완호 (생물교육58-63)

△정우식 (항공공학80-84)
△정웅진 (상학63-67)
△정원식 (교육학48-54)
△정은구 (법학58-64)
△정을삼 (의학60-66)
△정정길 (행정학61-65)
△故정효섭 (사회학59-65)
△정흥숙 (가정교육59-63)
△정희준 (법학57-61)
△조규광 (정치학48졸)
△조대연 (법학69-73)
△조동진 (행정학63-67)
△조무제 (사대원65-67)
△조상래 (수의학71-75)
△조성근 (행정원61졸)
△조영찬 (중어중문74-78)
△조원규 (생물학48-52)
△조장환 (농학53-60)
△조현래 (사회사업73-77)
△주근원 (경성제대43졸)
△주남철 (대학원69-77)
△주영숙 (치의학55-59)
△주정엽 (경영학95-02)
△지상구 (약학54-58)
△지철근 (전기공학45-51)
△진성박 (치의학75-81)
△진영춘 (토목공학67-74)
△진홍일 (외교학62-66)
△차원갑 (화학공학48-53)
△최 연 (섬유공학68-72)
△최광현 (무역학62-67)
△최병순 (화학교육69-74)
△최병주 (생물교육56-60)
△최영룡 (법학78-82)
△최우철 (의학82-88)
△최종덕 (물리학52-56)
△최종운 (의학77-83)
△최종대 (행정원66-68)
△최창신 (약학61-65)
△최향순 (조선공학65-70)
△최효열 (기약69-73)
△탁미선희 (치의학76-82)
△하두봉 (대학원56-58)
△한 영 (치의학79-85)
△한규록 (의학80-86)
△한정섭 (건축학48-52)
△한철주 (의학78-84)

△함종환 (농업교육63-70)
△허정국 (치의학55-59)
△현덕성 (약학66-70)
△현임종 (상학56-60)
△홍동선 (임학56-61)
△홍상희 (응용물리65-72)
△홍성오 (생물교육50-54)
△홍순겸 (AIP 5기)
△황병선 (외교학64-71)
△황성재 (법학72-76)
△황승기 (지구과학69-76)
◆85만원
△양승오 (의학75-81)
◆84만원
△오하이오지부동창회
◆80만원
△김재현 (경제학69-73)
△문영학 (토목공학65-70)
△박남훈 (외교학68-75)
△서병규 (행정원88-92)
△어 당 (섬유공학68-72)
△우두현 (상학61-67)
△유승규 (기계설계76-80)
△이인재 (지질과학64-72)
△정영일 (치의학64-70)
△정상명 (행정학68-72)
◆70만원
△서유현 (의학67-73)
△이병호 (공업교육63-67)
△이윤하 (제약학77-85)
△정필현 (의학82졸)
△하순봉 (독어교육60-64)
◆60만원
△김신원 (응용화학64-72)
△부영옥 (HPM 13기)
△안재휴 (광산학52-56)
△안대준 (기계공학83-91)
△여인철 (조선공학75-79)
△유종상 (중어중문66-70)
△이범구 (물리학69-73)
△이상용 (의학64-70)
△이용팔 (HPM 13기)
△이정구 (의학59-65)
△이찬구 (상학56-61)
△이태영 (농경제학54-58)
△이현구 (화학공학58-62)
△정대봉 (작곡72-80)

△조달호 (AMP 7기)
△조양래 (기계공학64졸)
◆58만원
△김상조 (약학54-58)
△이시정 (생물교육54-58)
◆50만원
△강 민 (금속공학70-74)
△강규범 (AMP 62기)
△강승호 (수학교육67-71)
△강윤걸 (기계공학53-57)
△강인식 (농공학79-83)
△강일우 (섬유공학71-75)
△강종호 (농학60-64)
△곽소진 (신대원70졸)
△곽언구 (AMP 34기)
△구본무 (응용미술60-66)
△권기술 (AMP 9기)
△김 농 (토목공학69-76)
△김 신 (경영학75-79)
△김건중 (정치학66-70)
△김광환 (행정원68졸)
△김기석 (법학59-64)
△김남석 (기계공학72-79)
△김당배 (경영학70-77)
△김병관 (농공학76-80)
△김봉근 (국어교육60-64)
△김상도 (조선공학78-82)
△김세겸 (농공학59-63)
△김수학 (물리학53-57)
△김순철 (국사학75-82)
△김용주 (화학공학73-77)
△김용진 (대학원80졸)
△김정근 (수의학50-59)
△김정란 (불어불문65-69)
△김정우 (상학67-71)
△김정욱 (금속공학58-64)
△김종호 (SGS 4기)
△김지영 (식품영양69-73)
△김진국 (정치학78-85)
△김진옥 (농학52-56)
△김차서 (AMP 19기)
△김초일 (식품영양78졸)
△김항원 (사회교육65-72)
△남시묵 (정치학54-58)
△남중희 (잡사학56-60)
△류재택 (역사교육66-73)
△문학모 (경제학58-64)

△민병천 (정치학52-56)
△박 찬 (정치학75-79)
△박건호 (상학59-63)
△박순철 (사법학83-87)
△박시우 (제약학69-73)
△박양세 (약학48-52)
△박용희 (상학53-57)
△박일재 (화학공학78-82)
△박철홍 (AMP 51기)
△박태권 (토목공학55-59)
△반성환 (농경제학50-55)
〈이상 2005년 10월 1일부터 2010년 6월 23일까지 출연해 주신 분〉

◆31만원
△황규준 (AIC 14기)
◆30만원
△권오걸 (철학72-82)
△권태호 (임학74-78)
△김찬우 (수리과학01-06)
△박노상 (기계공학57-61)
△서 구 (AMP 41기)
△손소영 (치의학54-58)
△오완영 (외교학59-65)
△우웅렬 (약학57-61)
△조방호 (경영학86-92)
△조지환 (농경제학50-58)
◆20만원
△임의택 (사회교육54-57)
◆14만원
△이석기 (HPM 14기)
◆10만원
△강창식 (ASP 6기)
△김극수 (건축학74-78)
△김봉규 (AFB 7기)
△김시창 (사회학63-68)
△박성연 (동양화89-93)
△서학수 (경영학82-88)
△이선주 (간호학81-85)
△이영진 (심리학91-97)
△이정희 (영어교육03-08)
△정일만 (법학72-76)
〈이상 2010년 5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출연해 주신 분〉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 2010년 5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10. 5. 7~6. 21)·일반(10. 5. 7~6. 21)
원내 숫자 :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평생회비

(이사) 김현수 사회87

(일반) 강병구 사회84
강석기 자연87 김득영 공대54
김 철 자연87 김경옥 간호75
김광기 保院82 김극수 공대74
김근재 법대96 김동섭 ACAD21
김수혜 음대66 김용중 법대95
김재철 법대57 김정규 음대56
김종태 공대84 김중경 농대54
김지현 공대84 김학수 사대40
김효중 차대99 남정원 약대85
남철현 保院62 노대래 법대74
류시현 ALP11 류재준 법대98
문명자 간호76 박경란 음대82
송장원 농대91 안우진 ABP8
예제두 行院78 유인태 문리68
유형석 공대81 윤병기 AMFR6
이경무 공대80 이동주 인문79
이동해 수의06 이상근 사회03
이정진 공대85 이종철 AIP41
이준채 공대06 임정원 經院94
전인하 AFB9 정광용 사회91
정구민 농대72 정대원 SPAR16
정인석 사대51 정창현 농대57
조성애 간호51 조영화 사회00
조유진 인문04 조재범 AIP29
조한국 차대54 조흥상 자연03
최진경 공대04 최창현 농대74
최효석 AMP67 홍수정 생활05
홍유나 사회05 황태영 공대00

이 사

◆사회대 이동현82
◆간호대 남은숙75
◆경영대 유병인69
◆공대 김용원70 김진무65
박장순64 변창훈70 장석주82
한동수78
◆농대 윤석호66 조진환50
◆문리대 김상균66 남시옥54
신경민71 정낙찬69
◆미대 백문기46 손대홍79
◆법대 김연곤85 박순백66
성지용82 윤신승88 이광진77
이세창57 최영훈78
◆사대 황재호61
◆상대 김중기54 조영삼71
◆생활대 손인희72 허문명86
◆약대 손영준61
◆의대 김태규76 박경호47
◆치대 강효식57
◆대학원 심정보83 윤용훈97

◆AMP 김종업28 서 구41
성영창26 장희수45 정범호61
◆AIP 강승우13
◆ACAD 공윤현47
◆AMPFRI 김병문17

일 반

◆인문대 권윤경95 김능구81
김덕수83 김진경84 김하늬05
박우현01 이국향85 장윤선92
전동호87 홍성범87
◆사회대 고지훈01 권순우81
김 열70 김광재90 김기령75
김명곤82 김상철01 남수진97
노영화88 노창현81 박근원03
박종일85 배지우91 송상종78
윤광기90 이영진91 이재민94
장유진06 정성호81 정혜승05
조성태03 홍재욱69
◆자연대 강태길90 김남성83
김운오85 김효진05 박미정05
상은정04 원현수74 유희원03
이인기72 장종만72 정용제06
정진욱90 하신우03
◆간호대 김용범06 신은숙65
이선미06 현희수53
◆경영대 김광민99 박현우03
방한솔00 오선영83 임정오68
장보현83 전인용03 정문철87
◆공대 김정현01 공순호00
공철규57 구본웅71 구철화03
구현모72 권봉일69 권하옥96
권혁일96 김 정04 김남수72
김대원03 김상문06 김석철62
김성수08 김엽동52 김영삼05
김영휘52 김인동80 김준용02
김전주57 김태영86 김관수53
김학성85 김현동06 김현우00
김홍재83 문현곤05 민병찬43
박노열06 박동정54 박상진69
박성일66 박용승54 박우성03
박이관58 박준호08 박지성03
반치범93 성영환58 소수철05
손승래54 송영수01 신대승55
신인수06 신정철67 신효순57
심남기04 심승기07 심윤식04
안정호96 안재혁03 양준호80
엄태석65 오서균63 육광수46
윤성욱02 윤장현89 윤정목63
이 환05 이광우60 이국로80
이규창51 이규화68 이기영86
이길형77 이대양03 이민규03
이법재73 이병일94 이선우46
이승욱05 이영민83 이용욱02
이용일86 이웅직51 이필원67
이현재06 이희승02 임경춘52
장덕수66 장두희82 장영배72
전지훈06 전흥기69 정 진84

정을호68 정재호88 정충길70
정필문84 조강원06 조진우93
차동원64 최규식00 최수흥06
최장락02 최창희06 하태흠75
한은근59 한정섭49 한정우98
한현철05 허정훈90 홍성우03
황이령05
◆농대 강문주45 강인목54
강창식56 김갑근65 김상후64
김영규51 김용기78 김정빈61
김정빈61 남현석81 류종렬74
문현동70 민인기67 박기하49
박운근55 박장렬53 박정문91
박종선73 박주원08 박창서63
반성환50 송기연55 송종관52
신동현86 신상혁53 신정균54
신진섭78 심상우57 양 희06
양준웅63 오세승53 유기원53
윤성준88 윤여창74 윤지현84
윤희석66 이석주54 이영열54
이혁근08 장성구73 장세종66
장영근68 장영진86 장용인70
정승우02 정해각55 조성환51
조준기54 조현호04 진명덕63
천기길57 최길웅02 최동균56
최동아06 최유지97 함맹중58
한명수74
◆문리대 강기진63 김광규60
김덕룡52 김영웅63 김옥남52
도홍길61 박명기57 배태영67
변중섭48 송길상48 심경보61
오권태56 오세한66 오인환58
유연수57 윤석대61 윤재문63
이용길62 이우동48 이주용53
이준모63 이종길62 이택희57
정국록71 조봉계61 최남준56
최선록59 한정인50
◆미대 강대운55 고승혜66
김정희81 변대성54 심치순57
양혜진99 이계안59 이혜인64
정택영56
◆법대 고왕석61 권순민89
김경문03 김기수47 김명종61
김명진74 김용제53 김일덕56
김정기75 김주현01 김준섭04
김현수01 민병권83 박우영54
박재태81 박종현90 박철웅63
박환승83 백대균99 변규철55
서원경01 설경진61 손운창94
신일규69 신진민60 신현욱66
안번일61 오세현78 오영진65
유병규83 윤진호63 윤홍근79
이봉재90 이용규88 이용우60
이은종77 이흥권87 전명호86
정규상82 정극수55 정인숙81
정일만72 정재형58 최영덕55
최용규00 황성일56
◆사대 구자혁57 권문한74
김중호60 김철호03 김현진91
남빛나05 박병윤65 박성수61

박주해50 박창만65 서정기53
신일윤66 심재홍72 오명숙40
유명수61 유운목81 이기원81
이승학87 이종현05 이주목97
이준형77 이진영51 이태웅71
장춘화83 정보미06 정은호59
조익선40 조혜승05 최안기70
최지순83 최현화52 추연화62
하병권57
◆상대 강용운61 고학모56
김규석55 김규식54 민병태58
박광철56 박영우58 박원규58
배기수61 백승태66 서정원64
서홍교63 손흥근54 송인구59
송인상35 송정위60 신문철52
신용태59 심남진49 오우현55
유병연61 이 연59 이계식56
이계훈51 이병세68 이재환62
임동승56 정상용61 정인성71
지무남64 최성환56 추준석67
하명근66 황금학60
◆생활대 김민정05 김성은83
김혜경82 박미현06 유경순61
이영선05 전혜정05 하승연05
홍산윤57 홍정란84 황혜자65
◆수의대 김명중59 김용대63
박유순63 석호봉63 송기홍61
안홍재05 이상우65 이종화53
정승기53 조병왕61
◆약대 권용준57 김두환48
김태준08 박태동77 송승희99
조경호94 조양태72 조운목85
조철원59 지상구54 채계화51
채영주52 최혜정86
◆음대 김영숙85 박명춘76
안화영05 양지영06 윤명순79
이기원49 장진선06 조 은04
조동건53
◆의대 김 윤62 김우곤55
박성근89 박수영05 송익훈45
염용태58 오정성67 이건우88
이은혜74 정대철07 차중익76
홍순원49 황태영95
◆치대 김관식76 김상세60
김성근66 김정균59 김화춘59
민기주81 박건배70 박연천72
박지완56 손소영54 안진수05
오순이88 윤태호82 이대경83
이일영66 장아림03 정상일91
정평구58 최인선82 홍성룡64
홍성익54
◆대학원 김현택82
◆경대원 장만기66 조정희69
◆보대원 김윤영98 오세민67
오수진02 이영현08 이태희87
정준영66 최희진98
◆신대원 김두근78 이민희73
◆행대원 김봉현65 서일수67
신정철89 여서환68 이원기67
조미진05 채희성71

◆환대원 송민겸08
◆AMP 강동환68 강은채44
김병오36 김병윤9 김성언66
김승호2 김용수15 김택동68
박성호63 박세영13 박원규50
박재상6 박종국44 백규현25
송병진44 신응문68 안창엽68
유부웅46 윤재룡62 이윤로50
이정빈68 이종철10 정시화60
정연길68 정흥기30 조남용68
조용주68 최병환68 홍종대4
◆AIP 강호린42 강호성15
고귀선19 김길근42 김순택6
나재암7 문규원10 문세웅42
박명규42 박명순42 박종기40
서영복19 손광열9 유은목6
이갑순9 전이현42 정진욱34
조종제14 함광남8 황이남22
◆ACAD 김병철65 김원근69
박해도66 손희걸68 유승봉69
이덕수44 이정근69 이학동44
임대환69 전형일12 최형태68
◆ABP 김영수26 김명근15
변정섭14 양관석20 오기선30
정공훈22
◆SGS 민경엽1 손창민24
유종국24 이민호16 이영강24
◆HPM 권부옥1 김병민25
김봉수21 문성호21 서정미7
이재우23 임일규1 차주환25
◆AMPP 강철환10 김경철2
김진호10
◆AIC 김인기2 박주학28
윤재영7 이찬주26 임진환7
◆AFB 서문환9 윤치영9
표재홍9
◆AMPFRI 고원선26 나승호7
노만기2 여정옥1 오경희26
이근식26 정지택3
◆ACMP 김현찬6 권오봉6
김재호6 김정훈5 안병준6
전혜선6 최정구3 하용환5
◆FIP 박인규6 전범훈6
◆GLP 김근호20 김명숙16
이재환16 최길운16 홍영화16
◆ALP 소운수10 윤문수3
◆SPARC 권세원16 유성택16
이동철16
◆AFP 김동춘5 김준호5
◆ASP 고진웅4 노희열18
이윤재17

5 월 계 : 17,565,732원
평생회비 : 17,500,000원
입 회 비 : 560,000원
총 계 : 354,932,932원